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CPe1.5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학살 자료집 NO.1

인권정보자료실
CPe1.5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2000. 3.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학살 자료집 NO.1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2000. 3.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차 례

자료집을 발간하며 : 진실을 위한 첫발을 디딘다-대책위원회 사무국 / 3

노근리의 해원을 넘어 베트남 학살의 참회로 : 강정구 / 5

현장르포 : 부끄러운 역사의 치부를 드러내며...

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 : 구수정 / 14

미군보다 잔인했던 '옹병' 푸옌성에서의 학살 : 구수정 / 18

역사발굴/단명의 길, 디엔반의 비명 : 구수정 / 22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종사... : 고경태 / 25

베트남의 반응

<일요 푸오이째>의 후속보도 : 구수정 / 27

베트남의 뜨거운 감동 : 고경태 / 30

이제 진실을 말할 때 : 김보근 / 34

참전군인들은 말한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죽었다" : 고경태 / 37

아군의 머리에 총을 들이댄 이유 : 황상철 / 41

강간과 민간인 집단사살은 실제로 있었지만... : 오연호 / 45

각계의 반응 : 이제 우리의 침묵을 끝내자

야누스의 얼굴 : 황석영 / 51

노근리, 노름, 그리고 이근안 : 방현석 / 65

상황논리, 면죄부 안 된다 : 강정구 / 68

아프간... 체첸, 그리고 베트남! : 박노자 / 71

연구논문 : 한국전쟁과 양민학살 - 강정구 / 74

해외언론보도 : 로이터 통신 / 105

한국군 양민학살, 세계적 이슈로

시민이 바라보는 양민학살 그리고 우리가 할 일 :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시민들이 먼저 사과합니다.

1억원을 모아주십시오 : 고경태 / 111

시민들의 참회의 목소리 / 113

시민단체 / 117

별첨 1 : 해외 웨이커 보고서 / 122

한국군이라 불린 동맹군 - 베트남 보고서 : 다이앤 & 마이클 존스

별첨 2 : 영문번역자료 / 148

별첨 3 : 베트남전 관련 논문 및 서적 / 168

별첨 4 :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 171

자료집을 발간하며

진실을 위한 첫발을 디딘다

차미경/국제민주연대,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사무국

베트남양민학살의 진상이 하나씩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한 여름의 더위가 지나가고 있는 1999년 9월이었다. 「한겨레21」 베트남 통신원인 구수정씨의 기고를 통해 우리들 앞에 모습을 보인 피해자들의 증언은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인가를 넘어서서 전쟁과 그 와중에 벌어지는 민간인 학살에 대해 잠들어 있던 양심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 한국에서는 한국전에 의한 양민학살들이 가려진 역사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학살의 소식들이 노근리, 베트남에서 드러나도 정부나 관련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한겨레21을 읽은 2,000여 독자들은 베트남 양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에 소리없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 액수는 현재 7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며 겨울이 왔다. 멈추지 않는 베트남 현지의 증언의 소식들, 이를 뒷받침할 정보들을 찾고 모금운동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한겨레21」 고경태·황상철 두기자의 노력, 거리캠페인을 통해 만난 시민들이 먼저 사죄를 위해 참여하는 모습은 정부가 진상규명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사회단체가 시작해야 함을 깨닫게 해준 계기였다.

신년 한 달을 넘기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모였을 때 함께 한 단체들은 8개 단체에 불과하다. 망자의 죽음을 밝히자고 모였지만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 끝날 것인지 그리고 목표는 어디인지 아무도 알고 있지 않았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베트남의 증언자들이 너무나 간절히 이야기한 “부디 진실만이라도 밝혀주고 진상에 대해 솔직히 사과만이라도 해주오”라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시작된 일이었다.

따뜻한 봄기운이 오후면 조금씩 묻어나는 3월 초, 처음으로 강정구 공동상임대표와 자문위원들,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 담당집행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참석했던 이들은 새벽까지 이야기와 술을 주고받으며 학살을 씹었다. 술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이 거나하게 취해갈 무렵 참석자 중 한 사람이 토해내듯 말했다. "전쟁은 더 이상 없애야해! 우리가 지금 모인 이유는 바로 그때문이야."

학살은 반인권전선의 절정이다.

80년대 광주항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판된 책 중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이 있었다. 대책위원회 일을 시작한 이후 누군가 "이 일은 힘든일이야"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책의 제목이 새삼 머리에 떠올랐다.

광주가 그랬듯이 베트남전은 무고한 죽음을 부른 20세기 야만과 광기의 시대의 결과물이고 반인권의 현상이었기 때문일까? ..그리고 그 곳 모두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까? 광주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10년의 긴 세월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출발은 예고된 긴 항해와 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대책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갖고 있을 것이다.

대책위원회에서 자료집을 만들자는 첫 제안은 자문위원인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뭔가 시민들이 알고 참여하려면, 그동안 나온 글을 한번은 묶어서 홍보를 하자는 의견에 대책위원들은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집이 누군가에 손에 전달되면 양민학살 진상규명에 동참해달라는 권유도 각자의 몫으로 결의했다.

감춰진 학살의 문제를 가지고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를 열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평화·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슴아픈 일이다. 당장 해야할 인권과 평화사업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과거청산, 불처벌의 역사를 드러내지 않은 채 새로운 세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얼마나 모순인가?

현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한국정부는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단체와 함께 진상조사사업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대책위원회의 첫 번째 요구이다. 첫 단추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학살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학살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대책위원회의 목적이다.

진실을 찾아나선 사람들, 30년동안 가슴에 감추어 두었던 개인의 아픈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한 분들의 용기는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이들의 가슴을 적시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힘들어도 학살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캠페인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근리의 해원을 넘어 베트남 학살의 참회로!

노근리의 해원을 넘어 베트남 학살의 참회로!

강정구/동국대 교수·사회학,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극단의 시대가 남긴 상흔

20세기는 극단의 시대라고 한다. 그 극단의 대표적인 경우가 전쟁이었고, 그 전쟁가운데 반인륜성의 극치가 전쟁 중의 양민학살이다. <전쟁의 슬픔>을 쓴 베트남 작가 바오닌이 말 한 것처럼 "총을 들지 않은 사람을 쏘는 건 이미 전쟁이 아니고 살인이다". 그것도 대체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살인행위이다. 이와 같은 전쟁 중의 양민학살은 그 학살의 규모나 질에 있어서도 전율할 정도이지만, 전쟁이라는 '불가피'하다는 핑계로 인류사적 쟁점화가 제대로 되지도 않거니와, 쉽게 면죄부를 안겨 준다는 점에서 더욱 가증스런 현상이다. 더구나 21세기를 맞은 오늘날 군산복합체에 의한 가공스런 전쟁무기의 개발로 인해 전쟁을 마치 즐기는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전쟁 중의 양민학살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50년 전 한국전쟁 중에 저지른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이 지난해에 세계적인 쟁점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제까지 남 몰래 원한곡을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들은 이제 공식적인 진혼곡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의 과제는 공식적인 진혼곡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민족사는 물론이거니와 인류역사에서 더 이상 이러한 전쟁 양민학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일 터이다. 이러한 역사로부터의 깨달음과 더 높은 역사로의 진전은 우리 자신의 원한곡에만 머무르지 말고 지구촌 곳곳에서 아직도 절규하는 다른 이들의 원한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코소보, 보스니아, 체첸, 동티모르, 이라크, 웨스트 파푸아, 르완드 등.

이러한 더 높은 역사 발돋움의 출발은 무엇보다 노근리와 같은, 한국전쟁 중 저질러진 일체의 양민학살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군이 저지른 베트남학살에 대한 참회로 승화시키는 것일 터이다. 곧, 우리가 겪었던 그 뼈저린 아픔에 대한 철저한 한풀이에 앞서 우리 자신이 저지른 베트남 양민학살에 대하여 그들의 한 맺힘을 푸는 일에 먼저 임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관한 잘못된 정답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미국 AP통신의 발표가 있자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또 자유와 민주주의의 화신인 미국이 어떻게 양민을 학살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경악이었다. 그러나 필자를 비롯한 한국전쟁을 제대로 경험했거나 그 진실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놀라기 보다 이 번을 계기로 한국전쟁의 진실, 특히 그 수많은 미군의 양민학살 행위에 대한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질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양민학살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건만 사회적 및 세계적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미국계 통신사가 대대적으로 발표하자 금방 쟁점이 되는 서글픈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한국전쟁에 관한 한 우리 사회에는 틀에 박힌 정답이 있어왔다. 곧, 전쟁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고, 전쟁에 관련된 모든 잘못은 북한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남한은 희생자에 불과하고 미군과 남한은 거의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정답이다. 이 정답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들은 쉽사리 빨갱이로 몰리고, 국가보안법의 제물이 되고, 한완상이나 최장집과 같이 사상검증을 받아야 하고, 조문파동과 같은 공안정국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므로 수많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은폐된 채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는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였다.

이제 이번 진상규명을 계기로 이러한 근거 없는 성역은 허물어져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 한국전쟁에 관련된 양민학살은 그것이 미군에 의해서 저질러졌건, 또 남한군, 북한인민군, 이승만 정권 등에 의해 저질러졌건, 과거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의 차원에서 철저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전쟁 중 저지러진 양민학살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포괄적 구도와 연결 속에 노근리 양민학살이라는 부분집합을 자리매김 하여야만 노근리 학살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가능하다.

한국전쟁 중에 저지러진 양민학살에 대한 전반적 구도를 포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첫째는 한국전쟁의 첫 단계인 '작은전쟁' 시기인 1948년 2.7구국투쟁에서 6.25전쟁까지 약 10만명의 양민학살이 자행되었다. 이는 주로 제주 4·3항쟁이나 여순항쟁과 같은 인민항쟁, 유격대투쟁, 38선상의 남북충돌에서 발생하였다.

둘째는 6.25전쟁 초기의 양민학살이다. 이에는 7월 초 약 30만에 이른다는 보도연맹원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군 특별조직인 HID를 통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학살을 출발로 한다. 이어 미군들에 의해 노근리나 이리역 폭파사건과 같은 체계적 양민학살이 자행되었다. 동시에 최근 미국국립문서보관소 기밀문건에서 확인된 1800명의 대전형무소 정치범의 학살과 같이 수원이남의 전국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상범이 대거 처형되었다. 이어서 전쟁 초기 남한의 전선지역에서도 좌익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 있었다. 또 북한인민군이 남한을 점령했을 당시 토착 공산세력과 인민군에 의한 양민학살이 있었고 그 숫자는 남한의 공식적 발표로는 약 129,000명이다. 그 이후 인천 상륙작전 후 수복과정에서 전쟁 중 부역자혐의로 남한군과 경찰에 의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양민학살은 대략 1백만 명에 가깝다고 정희상은 주장하고 있다.

셋째는 미군과 남한군이 50년 10월 1일 38선을 월북한 이후 북한을 점령한 약 40-50일 동안 저지른 북한양민에 대한 학살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주로 미군에 의해 172,000여 명의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실제의 학살은 미군, 남한 국방군, 서북청년단 등에 의해 저질러졌다.

넷째는 전쟁이 1951년 6월이 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전선이 지금의 휴전선으로 고착화됨에 따라 남한에서의 집단적 양민학살은 주로 제2전선인 지리산 등 유격지구에서 이루어졌으나, 북한지역에 대한 미군의 무차별 공중폭격과 함포사격으로 북한의 전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과정에서 수십만 내지 백만 여의 북한양민이 학살되었다.

노근리 양민학살의 진상규명 방안과 역사 바로세우기

노근리 양민학살을 바탕으로 이러한 양민학살에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겠다.

첫째 노근리양민학살은 미군이 저지른 수많은 양민학살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사건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경우만 해도 수없이 많다. 경북고령군 고령교 피난민학살,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2리, 경북 울릉군 독도, 충북 예천군 보문면 신성리, 충북 예천군 판교면 판교리, 전북 익산군 익산면 이리역, 경북 구미 형곡동, 경북 의성군 금성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교, 경북 포항시, 경남 함안군 군북면,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남 마산시 진전면, 경남 창원군 창녕읍 초막골 등이다.

둘째, 미군의 양민학살 역시 한국전쟁 중에 저질러진 전체 양민학살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기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대규모의 학살이 이승만정권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북한인민군에 의한 학살도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남한정권에 의한 학살에 비하여 규모가 작았다. 특기할 점은 중공군에 의한 양민학살은 전혀 제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미군의 양민학살은 많은 사람이 직접 체험하였듯이, 비무장 피난민인 즐쩍히 알면서도 무차별 비행기의 기총사격과 폭탄투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많은 피난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미군은 먼저 정찰기로 정찰한 이후 곧 이어 폭격기를

보내어 폭격을 감행하는 형식이었고, 또 때로는 경찰기에 의한 기총사격도 이루어졌다. 피난민들이 처음에는 저공비행을 하는 경찰기에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었다가 곧 이어 폭격을 당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넷째, 아군 땅이라고 간주한 남한에서 양민학살이 이렇게 비밀비재하였다면 적군 지역이라고 간주된 북한지역에서의 양민학살은 오죽했겠는가라는 의문은 논리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 경험적으로도 미군의 무차별 폭격에 의한 양민학살과 파괴행위는 추악한 전쟁으로 오명을 떨쳤다. 평양시는 당시 공공건물 두 채 밖에 남아있지 못하였고, 모든 거리는 헐거인의 주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할 정도였다. 또 원산은 해상포격이 하루도 빠짐없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미 해군사상 최장기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다섯째, 전투행위 중에는 의도치 않게 양민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양민학살은 적과의 전투행위 중에 발생하지도 않았고, 결코 우연적이고 개인적인 실수나 순간적인 판단착오 등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AP통신이 노근리사건의 경우에 분명히 확인하였듯이, 사단장인 소장의 작전명령과 같은 공식적 지휘계통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었다.

여섯째, 94년부터 정은용 씨 등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미국에 4차례 이상 진상규명과 보상을 청구했고, 남한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며, 『한겨레』, 『말』지와 같은 국내 진보언론이 이를 제기했으나 모두 묵살되었다. 이후 AP통신 곧, 미국의 언론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까지 미국은 부인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제3세계의 언론이나 목소리는 철저히 잠재우고 미국의 언론이 세차게 문제 제기를 하자 겨우 미국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미국 패권주의를 이 번을 계기로 다시 확인하였다.

일곱째, 민간인 속에 인민군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민학살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설사 피난민 대열 속에 적군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비무장한 어린이, 여자, 노인 등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학살을 감행하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무차별 살인행위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도 민간인 행렬 속에 적군이 숨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민학살은 없었다.

제3세계가 아닌 1세계의 전쟁에서는 이러한 학살이 있을 경우 사회적 또는 국제적 쟁점이 되었으나 왜 3세계에서의 양민학살은 이렇게 목살이 되는가? 이미 1949년 제네바 전쟁협정은 민간인 살상과 시설파괴를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전 참전경험에 관해 책을 썼다는 제임스 맥도노라는 퇴역 미육군 대령이 말한 것처럼 “군인들이 아무리 긴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을 용납한다면 전쟁과 야만행위가 구별 안 되는 암흑의 경지에 빠지게 된다.”

여덟째, 국내의적으로 반향도 컸고 미국정부도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이는 세계적인 언론의 보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상의지를 밝혔을 따름이지, 미

국정부나 남한정부의 진실된 의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진상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마땅히 노근리 외의 다른 지역의 양민학살에 대해서도 그들은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조사단 구성을 제의했어야 한다. 또 진상조사단의 구성을 미국과 한국정부 요원으로 한정해서는 안되고 민변이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같은 한국과 미국의 비정부 운동단체가 조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남한 조사단의 대표로 당시 양민학살에 관여하였던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군 장성이었던 백선엽을 내정한 점은 마치 친일파처리문제를 친일파에게 맡긴 이승만이나 박정희정권과 똑 같은 기만 행위이다.

미국의 통신사가 관련자 증언과 공식기록을 확인하자 노근리 학살사건은 국제적 쟁점이 되고 사회문제화 되었다. 미국정부는 이제까지의 부인일변도 자세에서 진상조사에 응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진상규명이 이들의 선의와 자의에 맡겨졌을 경우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다. 유가족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언론에 의존할 수도 없다. 핵심은 시민단체의 주도로 유가족, 시민, 국제 인권 및 평화단체가 연대하여 공동대응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미군양민학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국이나 한국정부의 진상규명에 이 단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근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 이어 국방군과 경찰에 의한 양민학살과 북한군의 학살에 이르기까지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에 대한 것에 까지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공식적이고 참회하는 사죄, 재발방지책 강구, 역사기록 남기기 등으로 매듭 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과거 전쟁 중의 양민학살에 대한 진정한 역사바로세우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인류사회의 뒤틀린 일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사이에 놓인 상처의 깊은 골

제3세계의 여러 국가들 가운데 우리와 가장 유사한 근·현대사적 경험을 겪은 국가를 꼽는다면 그것은 단연코 베트남일 것이다. 두 나라는 중국의 지속적인 침략과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유사한 역사적 경험에서부터 시작하여 1860년대 나폴레옹 3세하 프랑스 제국주의 팽창정책에 의해 조선은 병인양요를 겪었고 베트남은 식민지로 전락하였으며, 이후 2차대전이 끝나는 시점까지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와 단기간의 일본식민점령을 겪는 유사한 식민지배를 경험하였으며, 해방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북부 베트남은 중국의 점령을, 남부 베트남은 영국의 점령을 받는 지리적 분단을 다같이 경험하였다. 이후

똑같이 남에는 자본주의체제, 북에는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분단정권이 형성되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하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분단에서 전쟁과 통일에 이르기까지 패권주의 미국이 '공산주의 대 자유진영'이라는 단순 양분도식을 명분으로 지속적인 개입을 자행했고, 우리의 경우도 분단에서 전쟁 및 IMF경제신탁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행사되어 왔다. 단적으로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그 역사상 최초로 패배한 또는 최소한 무승부로 끝낼 수밖에 없는 뼈아픈 상처를 입었고, 베트남전쟁에서는 완전히 패배하여 미국이 누리던 세계의 경찰이라는 직분을 포기하고 야경꾼정도로 스스로 역할 축소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역사행로의 유사성, 외세인 미국의 결정적 영향력, 동시대의 사회경제적 연계성, 민족통일에 대한 유용한 역사적 지침성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과 한국은 서로 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역사와 삶을 공유하여야 할 이웃사촌이 되어야 할 사이이다.

그러나 베트남과 한국사이에 너무나 깊은 골의 상처가 놓여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여하고 또 엄청난 베트남인에 대한 양민학살을 저질렀다는 역사적 비극이다. "베트남전 참전은 우리의 진의가 아니었다"라는 주월한국군사령관인 채명신의 말처럼 같은 제3세계인 우리가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쟁에 미국의 용병으로 참전하였고, 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한국군들은 단지 미국의 용병일 뿐이었는데, 왜 미군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라는 원성을 들을 정도로 양민학살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학살을 저지른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역사적 진상규명과 사죄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과 우리는 비록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지만 여전히 양자 사이에는 어둡고 두터운 장막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9년여간 청룡백마맹호부대 등 총 31만2853명의 한국군이 참전하였고, 그중 4687명이 전사하고, 1170회의 대대급 이상 대규모 작전과 55만6천 회의 소규모 작전을 수행했고, 4만4100여명의 적군을 사살하였다 한다. 또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한미 공동작전시에는, 미군은 주로 후방에서 포를 쏘고 한국군은 직접 마을에 들어가 작전을 펼치는 등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한겨레21』의 구수정 통신원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한국군 지휘부는 작전 시 "깨끗이 죽이고, 깨끗이 불태우고, 깨끗이 파괴한다" "놓치는 것보다는 오인사살이 낫다" "보이는 것은 모두 베트남이다" "물(인민)을 퍼내서 고기(베트남)를 잡는다" "어린아도 첩자다" "땅굴이 있는 집은 모두 베트남이다" 등의 전술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 구수정 통신원의 지적처럼 총구는 양민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었던 것이다. 이 결과 아직 불확실하다는 단서를 붙인 베트남 문화통신부의 통계는 약 5천명의 집단 양민학살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공인한 수치의 배를 넘는 수치를 현지 지역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양민학살 숫자는 수만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베트남전투는 게릴라전투임을 고려한다면 한국군 전사자의 10배가 넘는 게릴라가 전투 중 한국군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상적인 게릴라전투에서는 일반적으로 정규군의 전사자가 많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한국군 전사자보다 게릴라전사자가 10배 가까이 많았다는 사실은 바로 양민학살에서 기인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한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이 이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미 라이 양민학살, 고엽제에 의한 살해, 북베트남에 대한 무차별 폭격에 의한 집단적 양민학살 등 미군의 양민학살이 어느 정도일 것인지는 짐작이 갈만하다. 여기에는 프랑스의 괴뢰정부였던 남베트남의 바오 다이와 미국의 괴뢰였던 고딘 디엠과 그 이후 미국의 하수인이었던(American boy) 남베트남 군부정권에 의해 자행된 양민학살은 불교사원의 불도들에 대한 집단 학살 등 한국전쟁에서 이승만 정권의 학살과 버금가는 것이었다. 최소한 2백만명 이상이 미국과의 제2차 베트남민족해방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 가운데 반수 이상이 민간인이었다. 그래서 두 전쟁 다 인류의 양심을 시험한 '더러운 전쟁'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 두 전쟁에서 이러한 끔찍한 양민학살이 자행되었는가? 우리는 두 전쟁의 성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이 되어 독선과 오만에 가득 찬 제국주의 미국의 개입이라는 특징에서 그 단초를 찾아야 할 것이다. 세계패권을 위한 미국의 독선에 의해 그 이전까지 한 나라, 한 땅덩어리, 한 민족, 한 형제들이었던 두 나라가 하루아침에 두 쪽으로 분단되고, 이 결과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체제를 거절하고 이를 스스로 무너뜨려 본래의 통일체제로 되돌아가려는 너무나도 자연적인 움직임 그것이 바로 전쟁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전쟁은 반제국주의전쟁, 민족해방전쟁, 사회주의 혁명전쟁, 통일전쟁이라는 공통의 전쟁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므로 여기에서는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의 참모습을 일부나마 구수정 통신원의 보도를 근거로 살펴보기로 한다.

베트남사람에게 한국군은 너무나도 잔인하여 못하는 것이 없는 군대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청룡이 지면 꼭 학살이 일어난다." "미군의 폭두각시들 중에서 한국군들이 가장 극악했다는 건 세 살 배기 아이들도 안다." 한국군의 잔혹한 대량학살 때문에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조차 가급적 직접적인 교전은 피하려 할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구수정통신원이 전하는 한국군의 학살만행 일부를 소개한다. 1965년 12월22일,

한국군 작전병력 2개 대대가 빈딘 성, 퀴년시에 있는 몇 개 마을에서는 “깨끗이 죽이고, 깨끗이 불태우고, 깨끗이 파괴한다”는 구호 아래 12살 이하 22명의 어린이, 22명의 여성, 3명의 임산부, 70살 이상 6명의 노인들, 곧 양민 중에 양민을 학살했다.

“랑은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만에 총에 맞아 숨졌다. 그의 아이는 군화 발에 짓이겨진 채 피가 낭자한 어머니의 가슴 위에 던져져 있었다. 임신 8개월에 이른 측은 총알이 관통해 숨졌으며, 자궁이 밖으로 들어내져 있었다. 남한 병사는 한 살배기 어린아이를 업고 있던 찬도 총을 쏘아 죽였고, 아이의 머리를 잘라 땅에 내동댕이쳤으며, 남은 몸통은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내 먼지구덩이에 버렸다. 그들은 또한 두 살배기 아이의 목을 쥐어 죽였고, 한 아이의 몸을 들어올려 나무에 던져 숨지게 한 뒤 불에 태웠다. 그리고는 12살 난 용의 다리를 쏘아 넘어뜨린 뒤 산 채로 불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한국군들이 마을에 들어가 주민을 체포하면 남자와 여자를 따로 나눴다. 남자는 총알받이로 데리고 나갔다. 여자는 군인들 노리갯감으로 썼다. 희롱하고 강간하는 것은 물론 여성들의 가장 신성한 부분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한국군들의 양민학살 행위유형은 무차별 기관총 난사, 대량살육, 임산부 난자살해, 여자들에 대한 강간살해, 가옥 불지르기 등이었고 “아이들의 머리를 깨뜨리거나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거나 사지를 절단해 불에 던져 넣”고, “여성들을 돌아가며 강간한 뒤 살해하고, 임산부의 배를 태아가 빠져 나올 때까지 군화발로 짓밟”고, “주민들을 마을의 땅굴로 몰아넣고 독가스를 분사해 질식사 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 천인공노할 죄악을 저지른 장본인이 바로 한국군이라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엄연한 역사적 현실이었던 것 같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살현장을 취재하는 한국인 구수정 통신원에게 베트남사람들이 보여준 순박함과 정감어린 미소는 우리의 옷깃을 여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노근리의 해원을 넘어 베트남 학살의 참회로

한국전쟁이 끝난지도 벌써 반세기가 가까워 온다. 베트남전쟁이 끝난지도 이미

반의 반세기를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원혼들은 구천을 떠다니면서 안착을 못하고 있다. 살아남은 유가족 역시 사무치는 원한을 가슴에 안은 채 쌓이고 쌓인 한을 풀지 못하고 있다. 또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겪은 쓰라린 과거가 아직도 종군위안부대책위원회의 목요일집회가 한 주도 빠짐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되살아나면서 우리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분노는 노근리를 계기로 미국에게 향하고, 종군위안부에 이르러서는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가 그토록 침이 마르게 칭송한 한국군 청룡부대가 무고한 양민들을 수없이 학살한 <머나먼 송바강>의 무대이기도 한 푸옌성 투이호아의 송바강 근처에 베트남 주민들이 세운 증오비와 한국군이 저지른 양민학살의 곳곳에서, 그들은 멀고 먼 한국을 향하여 한을 삭이려고 진저리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의 가슴속엔 우리의 한만 자리잡고 있었지, 그 수많은 베트남사람의 기막힌 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하고 수치스런 우리의 가슴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이제까지 일본이 저지른 야수적 행위에 대하여 진정한 사죄를 갈구해 왔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본에 대하여 원초적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친일파와 그 후예들이 아직도 이곳 남한 땅에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애써 눈을 감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노근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국에게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는 노근리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전쟁 중에 저지르진 미군의 모든 양민학살에 대하여, 북한 지역까지도 포함하여,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이 원칙은 우리의 남북정권에 의해 저지르진 양민학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전선이 없는 전쟁’이란 구실로 총을, 무기를 들지 않은 젖먹이와, 아이들, 여자와 노인들까지 무참히 학살한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행위에 대하여 일본이나 미국에 앞서서 정부, 참전군인, 그리고 우리 시민이 다 함께 진정으로 사죄하면서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노근리의 원한을 바탕으로 베트남학살의 참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지난날에 구애되어 앞날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승만 식의 역사인식이나 “과거를 달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베트남 정부의 반역사적인 교육지침은 우리가 취할 바는 아니다. 오히려 “불행했던 역사가 전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청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 역사적 진리를 베트남학살의 구체적 역사 속에서 실행시킬 때 우리는 새로운 21세기를 만들고 문명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르포-부끄러운 역사의 치부를 드러내며

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

최초로 확인하는 한국군의 양민학살 현장...
이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눌 때

구수정/한겨레21 베트남통신원

진혼의 노래라도 부르려는가. 아침부터 먹빛 얼굴을 하고 땅을 굽어보고 있던 하늘은 차가 사이공을 벗어나 1번 국도로 접어들자 바람을 앞세워 나무의 머리채를 흔들었다.

빗방울은 제물을 차창에 던지며 투두둑 눈물을 떨군다. 삼십년. 한 아이가 태어나 자라고 결혼을 하고 어찌면 그 또한 아버가 되었을 그 긴 세월의 강을 거슬러 가는 길. 서러운 혼넛들이 그렇게 눈물바람으로 맞았다.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

베트남의 동맥인 1번 국도를 잇는 주요 도시마다 베트남전 당시에는 한국군 부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백마부대는 캄란, 닌호아, 투이호아에 주둔했고, 맹호부대는 송커우, 퀴논, 푸캇에 그리고 청룡부대는 쭈라이, 호이안, 다낭에 주둔했다. 주월 한국군 총사령부는 사이공에, 주월 한국군 야전사령부는 나짱에 있었다.

그래서 과거 타이한이 족적을 찾아 떠나는 '순례의 여정' 은 1번 국도를 끼고 이어진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건설했다는 왕복 2차선 도로는, 미국이 "베트남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 고 공언했던 것처럼 곳곳에 생채기를 안고 있었다. 움푹 움푹 패어 있는 도로에서 차들은 깜짝깜짝 널뛰기를 했고, 구간구간이 아스팔트 복구 공사로 끊겨 있어 시시때때로 슬로모션을 취해야 했다.

주월 한국군 참전 3훈에는 "적에게 용감하고 무서운... 월남인에게 예의바르고 친절할 타이한이 되자..." 라고 적혀 있다. 한국군은 64년 9월22일 베트남 남부 봉타우를 통해 비전투부대인 태권도 교관단과 의료단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베트남

남전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65년 10월에는 청룡부대(해병 제2여단)와 맹호부대(수도사단)가, 66년 4월과 9월에는 맹호 제26연대와 백마부대(9사단)가 전투부대로 베트남에 상륙했다. 한국군들이 길을 닦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생필품을 지원하고 태권도를 보급하는 등 대민지원 사업에도 전투에 못지 않은 공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군의 전부였을까.

"한국군이 처음 마을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 한국군이 마을에 주둔할 당시에 주민들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했어. 전쟁이 끝나고 한국군이 마을을 떠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다시 마을에 돌아올 수 있었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불발탄, 지뢰에 손발이 잘려나가는 고통이 계속되었고, 부모를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은 상실의 고통이 평생을 따라다녔어."

참전용사들의 무용담 속에서 간간이 끔찍한 살육 얘기가 흘러나오긴 했지만, 나는 대개의 무용담이 그렇듯 과장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 얘기를 듣는 일은 내게 그저 온몸에 소름이 살얼음처럼 돌아나는 공포영화를 한편 보는 것과도 같았다. 그 영화 속에서 언제나 엑스트라로 등장하던 베트남 사람들. 그러나 카메라의 앵글을 바꾸자 그들은 생생한 신음소리를 내며 주연배우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창자는 밖으로 튀어나와 덜렁거렸고, 불에 타 누렇게 녹아내린 지방층에는 구더기들이 기어다녔다." "젓먹이까지 죽이고도 모자라 무덤조차 불도저로 밀어버렸다." "1번 A국도를 따라 채반을 들고 갈기갈기 찢겨져 흩어진 살점과 뺨조각을 주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증언자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믿기 어려운, 믿기에는 너무 잔혹한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한국군의 양민학살. 그 어울리지 않는 여덟 글자의 조합이 내 눈앞에서 어지럽게 땀물었다.

학살양민 공식집계 5천명

흔히들 베트남전을 '전선 없는 전쟁' 이라 부른다. 전후방이 따로 없고 피아의 구별도 없는 전쟁. 어떤 베트남전 참전용사는 이를 가리켜 "빠꾸기 우는데 정작 나가보면 병아리도 볼 수 없더라"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어디에도 있었고, 또 어디에도 없었다. 베트남 사람들조차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소이더우' (녹두콩을 섞어 지은 찰밥)라 불렀다. 낮에는 정부군이 통제하고 밤에는 베트남군이 지배하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으로선 아군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양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냥해야 하는 현실에 맞닥뜨려 있었던 것이다. 어찌면 학살은 미리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사이공을 출발할 때는 우기라 빗발이 잦았는데, 중부에 들어서니 건기의 태양이 뜨거웠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온통 성하의 초록 물결. 멀리 어머니의 젓가슴 같은 부드러운 구름이 마을을 감싸고, 눈에서는 넌라(베트남 삿갓모자)를 쓴 농

부들이 광주리를 옆에 끼고 손으로 비료를 뿌린다. 논둑길을 따라 소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도랑에는 오리떼와 함께 헤엄치는 아이들... 저 초록의 물결 위에 붉은 꽃물 하염없이 번져가던 날들이 있었다. 광주리를 팽개치고 달아나다 총에 맞은 농부들이 있었다. 새참을 이고 나왔다가 몸을 유린당하고 발가벗겨진 채 죽어간 처녀가 있었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젖가슴에 매달린 채 죽어간 젖먹이가 있었다. 하늘도 눈이 멀던 그날에.

1965년부터 73년까지 9년여간 청룡·백마·맹호부대 등 총 31만2853명의 파이한이 머나먼 열대의 땅 베트남을 다녀갔다. 그중 4687명은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이 땅에 부러놓고 원혼으로 돌아갔다. 이 기간중 한국군은 모두 1170회의 대대급 이상 대규모 작전과 55만6천회의 소규모 부대 단위작전을 수행했다.

한미 공동작전시에는, 미군은 주로 후방에서 포를 쏘고 한국군은 직접 마을에 들어가 작전을 펼치는 등의 역할분담이 이뤄졌다. 지휘부는 작전시 “깨끗이 죽이고, 깨끗이 불태우고, 깨끗이 파괴한다” “농치는 것보다는 오인사살이 낫다” “보이는 것은 모두 베트콩이다” “물(인민)을 퍼내서 고기(베트콩)를 잡는다” “어린이도 첩자다” “땅굴이 있는 집은 모두 베트콩이다” 등의 전술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총구는 양민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었던 것이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은 4만1400여명의 적군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이 밖에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공식적인 통계로는 집계된 적이 없는 베트남 양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베트남 문화통신부에서는- 아직 불완전한 통계라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한국군에 의해 집단학살당한 양민의 수를 대략 5천여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학살현장의 주민들은 이 수치를 신뢰하지 않으며, 정부가 정확한 진상조사에 소극적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숫자가 어떤 지역에서는 베트남 문화통신부가 공인한 수치의 배를 넘어서기도 했다.

필자가 이번에 답사한 지역은 베트남 정치국에서 나온 <전쟁범죄조사보고서-남부 베트남에서 남조선 군대의 죄악>에 소개된 지역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마주해야 했던 죽음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죽음에 대한 고상하고 엄숙한 모든 개념들을 뒤집어버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들은 ‘베트콩’ 이 아니었듯 ‘열사’ 도 아니었으며, 그들의 죽음은 감동적이지도 비장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서도 대접받지 못했다. 희생자들에게는 열사의 칭호도, 베트남 정부의 보조금도, 한국 정부의 보상도 없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그들은 묵묵히 위령비를 세우고, 위령제를 올려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자료를 만들어 자신들의 상처를 역사에 새기고 있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학살의 현장을 다니고, 그들의 아픔을 들추시고 다니면서도 나는 한번도 ‘복수의 위협’ 에 시달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 고단한 여정을 마치고 난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보여준 순박함과 정감어린 미소가 가슴속

에 따뜻한 샘으로 출렁이고 있음을 느낀다. 삼십년이 흘렀다. 이제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진혼의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한겨레21 273호-

미군보다 잔인했던 '용병' 푸엔성에서의 학살

- 한국군 한명 죽으면 그 다음날엔 마을 줄초상

구수정/한겨레21 베트남통신원

베트남 중부 푸엔성. 관광안내 책자에도 나오지 않고, 지도 한장 구할 수 없는 곳. 가게에 들어가 생수를 사면서 호아히엵으로 가는 길을 물었더니, 주인은 친절하게 약도까지 그려준다. 투이호아 시내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달리면 다랑대교를 만난다. 그 다리를 건너 호아빈 시장을 한 블록 지나쳐 왼쪽 길로 꺾어지면 호아히엵사(社)로 들어가는 작은 도로가 나온다. 이 길이 맞닿는 곳이 북(北), 중(中), 남(南) 호아히엵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이다.

여자들은 강간한 뒤에 싸 죽여

“한국군들은 1번 국도에서 호아히엵 삼거리를 지나 남호아히엵으로 밀고 들어왔어.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길 양편에 일렬로 세우고는 총을 쏘았지. 도망가면 쫓아가서 싸 죽이고...” 남호아히엵의 다응우촌에서 만난 후이엔수언(79) 할아버지는 당시 다응우 전략촌에 수용되어 있었다. “한국군이 물러가고 난 뒤에야 전략촌에서 나와 시신들을 수습했지. 사람들은 한국군들이 대충 물어놓고 간 구멍이를 다시 파서 가족들의 시신을 찾았어.” 그도 낚시하러 갔던 손자와 시장에 고기 사러 갔던 손녀를 잃었다.

1962년 미군이 이 지역에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마을에서 쫓겨나 전략촌에 수용됐다. 미군의 전략촌 계획은 농촌지역에서 베트남과 주민들을 분리하기 위해 여기 저기에 소규모로 흩어져 사는 주민들을 한데 모아 약 1천명 단위로 새로운 마을을 건설해 집단 수용하는 것이었다. 전략촌에는 찰조망, 목책, 가시나무 등으로 울타리가 둘러쳐졌고, 주민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다.

후이엔수언 할아버지 집 건너편에는 한국군에 의해 총상을 입고 왼손 새끼손가락과 넷째손가락 절반, 오른발 넷째, 다섯째발가락이 날아간 응웬탄중(50) 아저씨가 살고 있었다. 그는 허벅지에도 총에 맞은 흉터를 지니고 있었다. “그때 나는 호아

수언 전략촌에 수용돼 있었어. 아침에 전략촌에서 나와 마을에 일하러 내려갔다가 한국군 총에 맞았지.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들은 상처를 동여매주지도 않고 나를 헬기에 실어 부대지휘부로 끌고갔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목이 마르고 의식이 가물가물한데도 한국군의 심문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베트콩이냐?” “아니다.” “베트콩이냐?” “아니다.” 결국 한국군들은 마을 사람들을 데려와 대질 심문을 시킨 뒤에야 그를 집에 돌려보냈다.

푸엔성 투이호아 지역은 백마부대 28연대의 주둔지였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65년 말 이 지역에 맹호부대가 잠시 주둔했다가 66년 말부터 백마부대로 교체되었다고 한다. 미군이 주둔할 당시에 주민들은 전략촌 안에서만 살 수 있었는데, 한국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아침에 마을로 내려가 일을 하고 저녁이면 다시 전략촌으로 복귀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당시 베트남들은 이 지역의 바흔산과 용비아산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다. 약 3~4일마다 한번꼴로 한국군과 베트남군의 교전이 이루어졌다.

“한국군이 한명 죽거나 다치면 그 다음날엔 줄초상이 났어.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죄다 잡아다가 죽였지. 여자들은 강간을 한 뒤에 그 자리에서 총으로 싸 죽이고... 그 사람들은 다 전략촌에 있던 주민들이야. 베트남들이 낮에 어떻게 마을에 내려와?” 응웬탄중 아저씨가 산 증인을 보여주겠다며 아이를 시켜 전 아저씨를 불러오도록 했다. 응웬호전(62)의 부인인 리엵은 한국군에 의해 강간을 당한 뒤 총에 맞아 숨졌다고 한다. “한국군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망을 쳤지. 총에 맞아 손목이 부러졌는데도, 그냥 뛰었어.” 그는 강가 근처의 수풀 속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숨어 있었다. “한국군들이 철수한 뒤에 다시 마을로 돌아왔지. 근데 아내가 보이질 않는 거야.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 헤맸지. 9일 만에야 아내의 시신을 찾았는데... 온몸이 발가벗긴 채로 죽어 있었어.” 그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지고 눈에 물기가 어린다. 당시 총상을 입어 부러졌던 그의 왼쪽 손목은 아래로 꺾여 있었다.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악랄했다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한국군들은 단지 미국의 용병일 뿐이었는데, 왜 미군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가만히 전 아저씨의 얘기를 듣고 있던 응 아저씨가 푹 뻘은 한마디에 내 가슴은 화들짝 놀라 새가슴처럼 된다. 그는 78년 유골을 발굴하려는 미국인들이 미 비행기 추락 장소에 안내를 부탁했을 때에도 딱 잘라 거절했을 정도로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다. “군대를 끌고 베트남에 쳐들어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미군 유골을 찾아달라고... 어영!”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국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제발 다시는 남

의 나라 용병으로 가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마세요!” 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투두둑 쏟고 말했다.

푸엔성, 투이호아현, 호아히엡사에서는 한국군에 의해 세 차례의 집단 양민학살이 있었다. 1966년 1월1일(음력 65.12.10) 다옹우촌, 봉타우 마을에서 45명 학살, 같은 해 6월18일(음력) 역시 봉타우 마을에서 35명, 12월26일(음력) 푸락 마을에서 42명 학살 등이다. 응웬흐쩐의 안내로 아랫마을인 봉타우 마을에 내려갔다. 덜컹거리며 봉고차로 5분쯤 달렸을까. 작은 삼거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다시 왼쪽으로 꺾어졌다. 더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 윗마을에서 받은 충격으로 다리는 휘청휘청거리는데, 한낮의 태양은 외눈박이로 떠서 따갑게 등을 떠민다.

봉타우 마을의 쩐반호아 집 마당에는 대형 포탄피가 굴러다녔다. USA 모자를 쓴 아이가 포탄피를 굴리며 놀고 있다. 쩐반호아(63)는 66년 1월1일 봉타우 마을의 주민 45명이 집단으로 학살당한 장소에서 어머니, 누나, 장모, 처제, 처조카 등 가족 5명을 잃었다. “우리(베트남) 정부에도 불만이 많아. 집단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숫자가 나와 있지만,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죽은 사람들은 몇명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 30년이 지났는데도, 정부에서는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아.” 소문이 퍼졌는지 마을 사람들이 호아 집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없어 공책을 나누어주고 거기에 진술내용을 적도록 했다. 보티홍 아주마는 공책을 받아들고는 대성통곡을 했다. 그는 65년 12월10일(음력) 봉타우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어머니를 잃었고, 66년 6월18일(음력) 푸락 마을에서 오빠와 두명의 작은아버지를 잃었다. 그는 울면서 자꾸만 미안하다고 한다. “울어서 미안해. 울지 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정말 미안해.”

마을 사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학살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할머니 한분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다. “니들이 죽였어! 바로 니들이 그렇게 악랄했다고오. 들어봐! 여기 사방천지 귀신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레레레렉! 총을 갈겨서 다 죽였어. 어영.” 할머니의 원망보다도 마치 죄라도 지은 듯 민망해 어쩔 줄 몰라하는 마을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더욱 아파왔다. “한국에 돌아가거든 높은 양반들한테 한번 물어봐! 어떻게 그리 잔인할 수 있었냐고, 어찌면 그렇게 악독했느냐고...” 할머니는 내 팔소매를 잡고 놓지 않았다.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무는데, 자꾸만 눈앞이 흐려져온다. 울어서 미안하다는 보티홍 아주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별관에 홀로 선 '증오비'

완만하게 경사진 길을 따라 마을 아래로 내려가니 양어장이 넓게 펼쳐져 있다. 지금은 새우양식장으로 변했지만, 베트남전 당시에는 논밭이었다고 한다. 바로 이

곳이 주민 45명을 모아놓고 총을 쏘아 죽인 학살현장이다. 양식장 오른편으로 풀 한포기 돋지 않은 야트막한 모래언덕이 있다. 논에서 사람들을 썩 죽인 뒤 한국군들이 시신들을 이 언덕에 끌어다가 구덩이를 파고 묻어놓았다고 한다. 그 언덕에 향불을 피우고 묵념을 올렸다. 고개를 드니 언덕 너머로 산이 보이고 그 꼭대기에 바위 하나가 우뚝 서 있다. 한국군들이 주둔했다는 섬머이산이다. 봉타우 마을에서 다시 차로 약 5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들판 위에 비가 하나 서 있다. 비석으로 올라서는 계단에는 잡초가 돌아 있고, 비석받침도 군데군데 깨어져 나갔지만, 녹색이끼가 돌아 있는 비에는 '증오비' 라는 글자가 뚜렷했다. 증오비는 그렇게 인적도 없는 별관에 홀로 서서 학살이 있었노라고, 그리고 그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노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한해가 가고, 또 한해가 오고 그렇게 삼십년이 흘렀어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 타이한의 기억은 핏빛으로 선명했다. 해마다 새로운 강물에 상처를 행구어도 그들의 상실과 고통은 치유되지 않는다.

-한겨레21 273호-

역사발굴/단명의 길, 디엔반의 비명

68년 1월 청룡부대 학살현장 르포...
“당산나무 아래 위령비라도 세웠으면”

구수정/한겨레21 베트남통신원

“아이들 주검은 상자나 대바구니에, 어른들 주검은 커다란 채반에 담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지고 또는 끌면서 이 길을 걸었어. 마을은 쟁그리 불타고, 어디 담요나 해떡(그물침대)이 남아 있어야지.” 당시 61명의 목숨을 앗아간 학살 현장에서 두명의 누나와 네명의 조카를 잃은 응웬수(71) 할아버지의 회상이다.

시신 들러매고 시위에 나서다

다낭에서 남쪽으로 23km 떨어진 쿠앙남성의 디엔반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곳 탄쿠잇다리(디엔탕사)에서 지압바다리(디엔안사)에 이르는 구간을 ‘단명의 길’이라 부른다. 디엔안 양민학살 현장의 또다른 생존자 쩐티득(72) 할머니(응웬수 할아버지와 사돈관계)를 만나러 가는 길. 수 할아버지가 차창 밖을 가리키며 “바로 여기야” 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손끝을 따라가봐도 땅이 도톰하게 솟아 있는 듯 느껴질 뿐, 봉분도 없는 무덤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한국군들이 몰러가고 난 뒤, 마을사람들이 시신을 들쳐매고 길게 열을 지어 키엠쿠 초소를 찾아갔어. 만장도 없고, 크 흔한 눈물노 없고, 타들 넓이 나가서는 곡성도 풀어놓질 못했지...”

주민들은 남베트남 정부군 초소 앞 도로 양옆으로 시신을 늘어놓고 ‘청룡’에 대한 응징을 호소했다. 그러나 초소의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파리떼가 하늘을 새까맣게 덮을 무렵에야 초소 군인들이 빗장을 열고, 장례에 쓸 널빤지와 천을 내주며 사대수습에 나섰다. 이미 부패해 진 물이 줄줄 흐르는 주검은 다시 마을로 옮겨지지 못하고 도로변에 그대로 묻혔다. “널빤지와 천으로 시신을 물을 순 있어도 우리 디엔안 주민들 가슴속 원한이야 어찌 문겠누...”

쩐티득 할머니는 집에 없었다. “크 양반 허구한 날 절에서 살지.” 할아버지의 짐작대로 쩐우퐁절(주봉사)에 찾아가서야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아가! 네가

따이한이나?” 본존 불상을 모신 대웅전에서 예불을 드리던 할머니는 신발을 챙기지도 못한 채 맨발로 달려나왔다.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들어 필자의 얼굴과 등짝과 손을 고루 쓰다듬었다. 마치 정말 따이한인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나 하나 살겠다고 자식 손을 놓은 애미가 무슨 할말이 있다고...” 할머니는 애기 도중 “에구 망할 것...” 하며 자꾸만 당신의 가슴에 종주먹을 쳐댔다.

1968년 1월14일(음력) 풍니촌 럽남 마을. 아침에 눈을 뜨니 어젯밤까지 콩을 볶아대듯 울려오던 포성도, 간간이 섞여오던 총성도 거짓말처럼 똑 그쳐 있었다. “오늘 아침은 조용한 걸 보니 별일 없을 모양이야. 시장이나 퍼뜩 다녀오자구. 아무리 어수선하다지만 대보름 제사를 거를 순 없지 않은가.” 쩐티득은 아들 쩐찌(당시 12살), 옆집 부인 판티찌(65)와 함께 장을 보러 나섰다. 동구 밖까지 나섰을 때, 갑자기 1번 국도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와 함께 총과 탄환이 부딪혀 달각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약 1개 중대의 한국군(호이안 주둔 청룡부대 소속)들이 지압바다리를 건너 마을을 향해 전투대형으로 행군해오고 있었다. “어이! 마을 사람들, 남조선 군인들이 쳐들어오온다아!” 쩐찌 득의 팔을 잡아끌면서 냅다 뛰었다.

“아들의 원혼을 달려고 싶어”

마을 고샅길에 이르러 뒤를 돌아다보니 아들 쩐찌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소스라치게 놀란 득은 다시 들판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이미 마을 초입의 당산나무 앞까지 몰려온 한국군들이 “비시(VC: 베트남), 비시”를 외치며 기관총을 갈겨대고 있었다. 득은 갑자기 옆구리와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을 느끼며 판티옹의 논바닥으로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 달아나려는데, 뒤쪽에서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비명을 내지르며 우르르 덮쳐왔다. 수류탄이 날아들고 득은 점점 눈앞이 흐려져 오는 걸 느꼈다.

“후에 부인 집 양어장에서 물에 통통 붙어 있는 주검 17구를 끌어내고는 곧장 판티옹의 부인 논으로 달려갔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두개골이 박살나고, 창자가 터져나온 시체더미를 들어내니 맨 밑바닥에 이 할머니가 온통 피칠이 되어 누워 있었지. 아무리 전쟁중이지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응웬티탄(당시 21살, 여)의 배에는 창자가 모두 들어내지고 채소와 잡풀이 가득 채워져 있더구만. 쫓쫓...” 수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쩌우퐁의 비구니 스님들께 작별을 고하고 봉고차에 오르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득 할머니와 수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까 먼저 걸어나가시던데요.” 한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급히 그뒤를 쫓았다. 마을까지는 장정의 걸음으로도 한 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이다. “다낭으로 가는 길 아닌감. 방향이 다르잖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웃이며 머리의 먼지를 다 털어내고 신발까지 벗어 들고

서야 차에 오른다. 더이상 차가 들어설 수 없는 마을 들머리. 두 사람에게 한국 정부의 사과나 보상을 원하는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게 다 전쟁 탓 아닌감. 늙은이 소원이야 그저 아들 녀석 원혼이나 달랬으면 하는 거지. 저기 저 당산나무 아래에 위령비나 하나 섰으면 좋겠어. 인민위원회에서 돈을 각출한다는 얘기도 들리더구만...” 차가 모퉁이를 돌아서도록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구부정하게 서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다.

-한겨레21 280호-

월남에서 돌아간 새까만 김 중사...

썸티 육 할머니의 증언

“나를 강간하려다 남편 죽인 그 군인은 지금 어디에”

고경태/한겨레21기자

월남에서 돌아간 새까만 김 중사. 그 김 중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 있을까. 살아 있다면 그날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까.

68년 9월23일 오후, 베트남 칸호아성의 년호아현. 날은 화창했지만 마을엔 공포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한국군 백마부대가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썸티 육(55·당시 23살)은 세상에 태어난 지 1개월이 조금 넘은 둘째아들 비엔 쿠옥 틴을 꼭 안은 채 방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여보, 안심해요. 내가 있잖소.” 그의 남편 비엔 즈옹(당시 25살)은 불안해 하는 아내를 다독였다. 사실 걱정할 게 없었다. 베트남으로 의심당할 만한 꼬투리는 전혀 없었다. 그러기는커녕 남편은 미군 23사단 소속의 군인이었다. 마침 잠시 집에 다니러 온 상황이었고, 군복까지 입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게 헛일이었다. 백주에 썸티 육은 건넌방으로 끌려가 치욕 일보식전까지 갔고, 남편은 가슴이 뢰하니 뚝뚝 성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종살을 당해야 했다.

남베트남 정부군, 현장검증까지 하다

“맨 처음 5명의 한국군이 들이닥쳤어요. 집을 살펴보더니 그냥 가대요. 그러더니 조금 뒤 또 다른 5명이 들어왔어요. 그들 역시 아무 일 없이 돌아갔죠. 그런데 마지막 5명의 병사들이 문제였어요.” 썸티 육의 증언이다. 그는 자신이 육을 봤던 옆 방으로 기자를 데리고 가 계속 말을 이었다.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에 옷장이 있었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혹시 사람이 있는지 마구 부숴버리고 확인을 한 뒤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옷을 벗고 엎드리라고 하대요.” 그는 반항하지 못했다. 순순히 알몸이 되어 엎드려야 했다. 큰아들 비엔 쿠옥 수(당시 5살)는 공포에 질린 채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다. 젓먹이 비엔 쿠옥 틴은 그저 혼자 버둥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둘째아들을 출산한 지 한달반 밖에 안된 상태였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거 때문에 엉덩이 부근에 베트남 전통약제를 잔뜩 발라 놓았거든요. 그 한국군은 인상을 찡그리더니 그냥 옷을 입으라고 하더군요.” 그는 위기를 모면했지만 곧 마당에서의 비명을 들어야 했다. 남편은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다. “분명히 우리 남편은 베트남이 아니었는데, 미군 소속의 남편을 왜... 도대체 왜 죽여야 했을까요. 저를 육보이려 했던 걸 숨기려 했던 걸까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이후 남베트남 정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다른 마을 피해자 같았으면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미군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다. 관계기관에서 현장검증을 나왔고, 한 한국군이 체포돼 왔다. 백마부대 김 중사라고 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죽었어요. 저 사람이예요.” 그는 울면서 소리쳤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조사반은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는 돌아갔다.

쌀과 밀가루가 죽음에 대한 보상?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알량한 구호품이 전부였다. 쌀과 밀가루 한가마니, 기름 한통... “홀로 두 아들을 키워 오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지요. 그때는 한국군을 정말 증오했습니다. 32년이나 흐른 지금에 와서는 글썄... 다 세월에 씻겨 내려갔지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당시 참전군인들에 따르면, 여자와 돈을 밝히는 병사일수록 전투 중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헤이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징그러운 여인의 엉덩이에 눈을 돌리고만 김 중사. 그는 과연 징글징글한 베트남의 정글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한반도 어딘가에 살고 있기는 한 것일까.

-한겨레21 292호-

베트남의 반응

<일요 투오이찌>의 후속보도

<한겨레21> 이어 한국군 양민학살 베트남서 최초제기...놀라움 속 모금운동

구수정/한겨레21 베트남통신원

“일요 투오이찌(젊은이) 봤어요?”

아침부터 전화통에 불이 났다. 베트남전 종전 이후 최초로 베트남 언론에서 한국군 양민학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시사주간지 <일요 투오이찌> 9월19일자에는 ‘잊혀진 양민학살- 생존자들과 함께’ 라는 제목의 르포기사가 실려 있었다.

“과거를 잊은 건 베트남이었다”

<일요 투오이찌>는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양민학살 사건의 극히 일부분인 쿠앙옹 아이성의 빈호아 양민학살 사건을, 그것도 두쪽 분량으로 짧게 다루었을 뿐이지만, 그 기사가 불러일으킨 반향은 엄청났다. 우리가 한국전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피해 당사자들을 제외한 베트남인들이 한국군 양민학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접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오이찌 신문사로 격려의 전화가 걸려오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성금을 보내온 독자들도 있다고 한다. 성금이 답지하게 된 연유는 이렇다. 필자도 소개한 바 있는 빈호아사 커우 마을의 우물가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66년 12월6일 한국군들에 의해 양민학살이 일어났던 현장이다. 당시 한국군들은 다연발총을 갈겨 주민 131명을 몰살시킨 뒤 수류탄을 던지고 벧단과 분노 등을 퍼부어 우물마저 덮어버렸다. 이 마을의 유일한 식수공급원인 우물에서는 더이상 예전처럼 맑은 샘물을 길어올리지 못한다. 우기 때면 그런대로 사용한다지만 건기가 되면 커우 마을 사람들은 옆마을인 록트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만 한다. 우물가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사진을 찍어대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곤 하는 필자를 바라보며 혀를 찼다. “그만두게, 젊은이. 맨날 사진

들은 찍어가면서, 한번 왔다 가버리면 그만이다군. 우리가 정부에 우물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지가 벌써 7년째야. 하긴 200만동(20만원)이 어디 적은 돈인가.”

최근 이곳 빈호아사에도 전기가 들어왔다. 그러나 밤이 깊어도 이 마을에 전등을 켤 수 있는 집은 없다. 집까지 전선을 끌어오려면 가구당 100만동을 내야 하는데, 벽촌 살림에 엄두가 나지 않는 금액이다. 빈호아사 인민위원회 주석 딘키엔은, 이 지역 인구의 37%인 510가구가 극빈층에 속하며, 그중 212가구가 한국군 양민학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빈곤층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기사가 보도되고 이를 뒤, 빈호아 지역 르포기사를 쓴 <투오이찌> 기자 옹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어쩌면 과거를 잊은 건 우리들 자신이었지 한국인들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일요 투오이찌>보다 몇주 앞서 <한겨레21>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가슴을 쓸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내 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지금 <투오이찌>에서는 빈호아사 우물 건립과 초등학교 변전소 설립에 드는 재원(2천만동)을 마련하기 위해 기자들부터 각출을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오이찌>는 <한겨레>쪽에 ‘한국군 양민학살 피해자 돕기’ 공동 캠페인을 벌이자는 제안을 해왔다. <한겨레21> 273호에 실렸던 한국군 양민학살 기사를 <투오이찌>에 전면 재게재하고, <투오이찌>와 <한겨레>가 한국군 양민학살 지역을 동행취재하며, 양대 언론이 동시에 국민성금 모금운동 등을 전개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며칠 뒤 옹웬이 플죽은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투오이찌>에서 제안을 취소했어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이라고 그는 말끝을 흐렸다. 현재 베트남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과거의 문을 닫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한국 정부와의 외교관계,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 유치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는 않을까 신중한 고민이 뒤따랐을 것이다.

<한겨레21>에 공동캠페인 제안하려다...

공교롭게도 필자가 ‘베트남 특별르포-한국군의 양민학살 현장’ 이라는 기사를 쓸 무렵, 서울에서는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의 항의데모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또다시 한국전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인 ‘노근리 사건’ 으로 뜨겁다. 과거 묻혀졌던 양민학살의 문제가 베트남전 당사자인 베트남과 미국, 그리고 참전 국가인 한국에서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다시 피해자로 등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마음이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당연히 ‘노근리 사건’ 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연한 요구를 위해 베트남에서의 우리의 지부를 이제는 들여다보자.

-한겨레21 278호-

베트남의 뜨거운 감동!

‘한국군 양민학살’ 사죄 노력, 한국에 대한 선입관을 전복하다

고경태/한겨레21 기자

“베트남 교민들과 무슨 ‘웬수’ 라도 졌나.”

호치민에서 사업을 하는 박아무개(38)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겨레21>이 사사건건 교민들에게 탄축을 건다는 피해의식 때문이다. 지난 5월 ‘신라이파이한 문제’ 를 제기할 때는 그래도 참을 만했다. 한번쯤 경중을 올려줄 만한 교포사회의 현실 아니었던가. 그런데 6개월이 채 안 돼 ‘베트남전의 한국군 양민학살’ 문제가 또 터졌다. 더구나 이 기사는 베트남의 유력 언론인 <투오이찌>와 <일요 투오이찌>가 ‘받아’ 크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달도 안 돼 호치민의 베트남인들 중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버린 것이다. “30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을 새삼스럽게 들추는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답답하다” 고 그는 말한다.

그렇다. <한겨레21>이 9월2일치(273호)로 보도한 ‘베트남 특별종단르포-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 는 이제 베트남 국민 모두의 관심거리가 됐다. 호치민국가대학 교정에서 만난 넷(21·신문방송학과 2학년)은 <한겨레21> 르포를 소개한 <투오이찌> 기사를 아예 복사해서 수첩에 지니고 있었다. “처음 보도됐을 때는 둘 이상만 모이면 ‘한국군의 양민학살’ 이야기를 했다. 북부지방 출신 친구들은 ‘처음 듣는다’ 고 하고 실제 양민학살이 있었던 중부지방 출신들은 ‘이미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 라고 해서 토론이 끊이지 않았다.” <일요 투오이찌>가 관련 기사를 3주 연속 보도하는 것은 물론 일간지 <투오이찌>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 위력은 더해갔다. 시쿨로(자전거 인력거) 운전사들 사이에서도, 시장통에서도, 미용실에서 ‘한국군의 양민학살’ 이 화제로 떠올랐다.

한국 청년들, 고개를 숙이다

한국군의 양민학살. 그것은 정말 베트남 교민들에게 해롭기 짝이 없는 이슈인 것일까. 그러나 기자가 만난 베트남인 중에는 교민들 생각과는 정반대의 반응이 많았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 몰랐다.” “한국이 왜 경제발전을

이룩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무슨 일토당토않은 소리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다. 많은 베트남인들은 지금 한국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보내고 있다.

왜 그럴까. 여기서 한 가지 ‘사실’ 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지금 호치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말해 ‘한국군의 양민학살’ 이 아니다. 베트남 언론이 30년 동안 단 한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문제를 ‘한국 언론인이 최초로 용감하게 폭로했다’ 는 점을 그들은 높이 사는 것이다. 더불어 이 기사 이후 지금 한국에서 ‘사죄의 성금운동’ 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놀라는 것이다.

11월28일 일요일 오후 3시, 호치민청년문화회관 2층 교류관. 외국인과의 교류행사가 자주 열리는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제목은 ‘구수정과와 교류’. <한겨레21> 273호에 ‘한국군 양민학살 현장르포’ 를 썼던 호치민의 구수정 통신원이 이날의 주인공이었다. “한국 용병은 왜 그토록 잔인했고, 아이들까지 죽일 정도로 이성을 잃어야 했나”,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가”, “한국이 노근리 사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다면 베트남에도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행사장을 가득 메운 200여명의 베트남 청년들이 던지는 질문은 무거웠다. 그러나 구수정 통신원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적셨다. “과거 우리 민족의 잘못을 이야기한다는 건 내게도 고통이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머지않은 시기에 그 누군가 했을 것이다. 과거는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없다.” 한국 유학생 대표는 사과문을 낭독하고 고개를 숙였다. 베트남 청년들은 “당신들의 용기를 사랑한다” 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 고 말했다. 30년 세월을 거슬러올라 아버지 세대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안고 만난 한국과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화해의 가슴’ 을 열고 하나가 된 것이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외국인과 정치적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연 것은 회관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호치민 청년문화회관장 응웬 쉐언(42)은 이날 자리가 “베트남 청년들의 요청” 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일요 투오이찌>에 기사가 실린 뒤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구수정을 만날 수 있는가’ 하고 물어왔다. 우리는 베트남 청년들이 기사를 통해 알게 된 구수정을 직접 만남으로써 깊은 감흥과 교훈을 얻기를 바랐다.”

덕분에 구수정 통신원은 베트남에서 ‘유명인사’ 가 됐다. 마치 ‘한국 젊은이를 대표하는 인물’ 처럼 된 것이다. <투오이찌>에 그의 얼굴이 여러 차례 실리면서, 그의 얼굴을 알아본 호치민 시내 호텔 종업원들이 커피값을 안 받는 일까지 생겼다. 호치민을 벗어난 나짱·닌호아 등 중부지방에서도 그를 알아보는 이들 때문에

당황하기 일쑤다.

<일요 투오이찌>의 기사를 작성했던 투이옹아(37) 기자는 “<한겨레21> 기사 소개와 한국인들이 사죄를 위해 성금을 모으고 있다는 글이 나간 뒤 당 위원회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고 자랑했다. 그는 이 기사로 투오이찌 신문사 전 기자들이 뽑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상금은 그달치 월급을 두배로 받는 것.

투이옹아 기자는 “이번 보도가 한국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의식의 근저를 흔들 어놓았다”고 말했다. 베트남 사람들 마음 밑바닥엔 한국인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웅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역사에다 최근에는 한국기업 관리자들과 현지 노동자 구타사건까지 얽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몇년 전부터 베트남에 수입된 ‘한국드라마’들이 그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요즘엔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가 대히트다. 하노이방송과 호치민방송은 물론 주요 지방방송의 황금시간대는 모두 한국드라마가 점령하고 있다). 투이옹아 기자는 “드라마가 한국에 대한 인상을 극히 일부 ‘개선’ 하는 데 그쳤다면, 한국의 ‘한국군 양민학살’ 성금운동은 한국에 대한 기존의 선입관을 ‘전복’ 했다”고 풀이했다. 자기 나라의 역사적 죄악을 스스로 고백하고 사죄하는 모습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저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양민학살이 일어난 지역에서도 그랬다. 두달도 채 안 된 찻먹이 아들을 안고 있다가 집에 침입한 한국군에 욕을 보았고, 바로 옆에서 베트남도 아닌 미군 소속의 남편이 사살당하는 기막힌 장면을 봤다는 칸호아성 닌호아현의 찻티 욕 할머니. 한국인들의 성금운동에 대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에게 한국은 너무 ‘가혹한 기억’으로만 자리잡고 있었던 탓일까.

로이터 통신도 관심 표명

<한겨레21>이 제기한 ‘베트남전의 한국군 양민학살’ 문제는 작은 태풍이 되어 호치민을 때렸다. 그리고 덩치를 키우며 베트남 남부에서 중부로, 중부에서 북부로 조용하지만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아니 이제 전세계로 향할지도 모른다. 세계 유수의 통신사인 영국의 <로이터 통신>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쪽은 곧 구수정 통신원을 인터뷰한 뒤 12월 중순부터 취재에 들어갈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의 하노이 주재사무소 관계자는 “빈딘성에서만 1천 여명이 죽었다니... 밀라이학살도 504명 아니냐. 이렇게 큰 규모의 학살이 어떻게 세계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가” 하고 놀라워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학살 자체에 대한 고발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인이 스스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한국인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아 전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 문제는 한국 정부다. 정부차원의 ‘겸손한 사과’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베트남인들의 감동은 배신감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는 전전공공할 뿐이다. 오히려 ‘베트남의 노근리’가 될까 숨기기에만 급급한 형편이다. 한국을 거쳐 호치민을 때리고, 하노이를 넘어 전세계로 향할 ‘한국군 양민학살’의 태풍은 언젠가 해일이 되어 한국 정부를 덮칠지도 모른다.

-한겨레21 287호-

이제 진실을 말할 때

-새로운 평화의 시험장 될 베트남 양민학살 문제-

김보근/〈한겨레〉 문화부 기자

20세기의 마지막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1999년 12월22일 베트남에서 가장 진보적인 신문 <투오이찌(젊은이들)> 편집국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베트남 남부의 중심도시 호치민에서 발행하는 이 신문 기자들은 논란 끝에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 문제를 보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사는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의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 <한겨레21>이 연속기획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옮긴 것이다. <투오이찌>는 국제민주연대의 거리캠페인 사진도 <한겨레21>에서 받아서 내보냈다.

1975년 통일 이전 남부베트남의 학생운동 지도자였던 편집장을 비롯한 기자들은 '양민학살' 기사를 보도한 뒤 "이제 우리는 큰 산을 넘었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양민학살 사건 보도를 통해 베트남 언론자유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베트남 정부는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 보도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각 언론사에 내려보낸 상태였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인 한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베트남 정부는 한 예로 세계 4대 통신사 중 하나인 <로이터>가 이 문제를 취재하겠다고 낸 신청서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투오이찌>가 뜬 물꼬는 1999년 12월28일 호치민시 당위원회 직속 언론인 <사이공해방>으로 이어졌다. 당 위원회의 기관지 성격인 <사이공해방>마저 이날치 국제면에, 비록 홍콩 신문을 인용하는 형식이었지만 <한겨레21>의 '양민학살' 보도내용을 실었다. 국제민주연대와 <한겨레21> 등의 '베트남 양민학살' 캠페인이 뜻하지 않게(?) 베트남 언론자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투오이찌> 사건'은 필자가 베트남을 방문했던 1999년 12월19~29일에 이루어진 베트남 양민학살 관련 에피소드 중 하나다. 필자의 베트남 방문은 <한겨레>와 경남대가 공동 기획한 시리즈 '통일, 3국으로부터 배운다'의 취재를 위해 이루어졌다. 새해초부터 10주에 걸쳐 <한겨레>에 연재하고 있는 이 시리즈의 취지는 "통일을 이룬 베트남, 독일과 통일이 진행중인 중국·대만으로부터 통일의 장점을 배우자"는

데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 가서 통일 얘기만큼 많이 들어야 했던 것이 국제민주연대이 진행하는 진상규명 노력 등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 문제였다.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뿐 아니라 현지의 베트남인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물론 모두가 양민학살 보도와 시민단체의 진상규명 캠페인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과연 베트남 양민학살이 '평화'와 관련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살펴보자.

호치민 국가대학 인문사회과학대의 호시콕 교수(역사학)는 한국의 언론과 시민단체가 양민학살이라는 아픈 부분을 스스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이다. 호치민시 사학회 주석이기도 한 그는 "베트남 중부에서는 한국군의 양민학살 문제를 누구나 알고 있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배상요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요구해서 받는 사과나 배상은 당사자의 진심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학살은 미군에 의해 자행된 부분도 있지만 미국은 스스로 사과하거나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호시콕 교수는 또 "사실 한국군의 양민학살은 피해 규모 면에서 볼 때 베트남에게는 미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베트남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벌어진 미군 동과의 싸움에서 450만명 이상이 죽었기 때문이다. 호시콕 교수는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아픈 부분을 제기하는 데 대해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그는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가 "한국 스스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20세기를 정리하는 마당에 한국으로서도 이것을 풀고 가는 것이 스스로 자랑스러울 것"이라는 것이다.

호시콕 교수의 '양민학살 보도'에 대한 반응은 베트남 지식인의 평균적 사고를 보여준다. 필자가 베트남에서 만난 기자, 당 간부, 연구소 연구위원 들도 한국의 양민학살 보도와 관련해, 한국인들의 잔인함을 비판하기보다 한국인이 먼저 이 문제를 끄집어내고 사과하려 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국제민주연대 등 한국시민단체의 사과 캠페인이 모두에게서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양민학살 문제' 보도와 캠페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표적 사례는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의 몇몇 관계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일부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아직 상처를 끄집어내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논리로 '양민학살' 캠페인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양민학살 보도는 베트남에 나와 있는 한국인들이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없도록 부끄럽게 만든다"며 "양민학살 보도와 캠페인은 또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노사문제를 겪거나, 심지어 교민이 테러를 당하는 극단적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과·배상문제 등은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마친 뒤에 제기해야 옳다는 게 이

관계자의 생각이다. “민간에 의해 진행되는 베트남돕기 운동은 자칫 거짓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그는 덧붙였다. 물론 그의 말은 현지의 분위기에 서 볼 때, 과장이다. 하지만 현지 교민의 안전과 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대사관 관계자로서 그가 한 ‘우려’마저 비판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 한국과 직·간접으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인 중 일부도 이런 우려에 동참한다.

과연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을 보는 두가지 시각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어떤 것이 ‘새 천년의 평화’ 개념과 맞아떨어지는 것일까? 어쩌면 둘 모두 각자의 처지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양민학살’ 보도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을 들으면, “그럼 우리가 그동안 계속 미국과 일본쪽에 제기해왔던 노근리 양민 학살과 일본군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배상요구의 정당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국가 이미지 추락을 이유로 ‘노근리’와 군위안부문제를 묻어두려고 해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평화’일 수 있지만 과연 우리에게까지, 아니 형제로서의 인류의 눈으로 볼 때도 평화로운 상태 일 수 있을까? 사실 베트남 양민학살은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가해자”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베트남 양민학살 캠페인의 결과를 한국이 가져야 할 ‘새로운 평화개념’의 시험장이 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국제민주연대 「사람이 사람에게」 창간호-

참전군인들은 말한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죽었다”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육성... “베트콩과 양민 구별할 수 없었던 상황”

고경태/한겨레21 기자

불타는 정글 속에 그가 있다. “빨리 뛰어 이 자식들아!” 악을 쓰며 고향을 질러보지만 이내 수류탄의 폭음에 묻혀버린다. 아니다. 여기는 정글이 아니다. 수십구의 시체가 나뭇구멍 마을 들머리. 다시 장면이 바뀐다. 탁자 위에서 그를 노려보는 자가 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통도 없고, 오직 머리만 남은 적의 서늘한 눈동자. 그는 천천히 그 목 잘린 시체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나는 아직도 베트남의 정글에 남아있는 것일까. 30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왜!”

또 꿈을 꾀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다. 긴 한숨을 토하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언제쯤에나 ‘악몽’에서 해방될 것인가.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기도를 드린다. 신앙을 갖지 않았으면 이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믿는다.

아빠의 훈장

김종철(53)씨. 현재 전주에서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그에게 베트남 전쟁은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67년 3월부터 2년6개월간 육군 보병 제9사단 (백마부대) 30연대 소속으로 판랑지역과 혼바산일대에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DF·속칭베트남코뮤니스트 Vietnam Communist의 약자로 V.C 또는 베트콩으로 불렸다) 게릴라들과 교전했던 그는 당시 선임하사관으로서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다. 68년 5월 혼바산 일대에서 있었던 동보7호작전에서는 수백명의 베트콩을 일망타진해 화랑무공훈장과 미국동성훈장을 받았다. 그 훈장들은 지금도 그의 집 거실에 걸려있다. 물론 그 훈장의 ‘명예’에 대해서는 한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런데 어느날, 직장에서 돌아온 딸이 물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

았어요. 저 훈장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 수많은 양민들을 잔인하게 죽인 대가가 바로 저 훈장이요? 아버지는 저 훈장들이 자랑스러우신가요?” 큰아들까지 아버지를 다그쳤다. “근데 젓먹이는 왜 죽이셨나요? 아가씨들과 할머니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나요?” 너무 뜻밖의 일이라 아무말도 할 수 없었던 그는 그저 “그걸 어디서 들었나”고 묻기만 했다. 남매를 분노케 한 것, 그것은 바로 <한겨레21>의 기사였다.

그는 그래서인지 제목까지 외우고 있었다. ‘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 <한겨레21>273호 베트남 중단 특별르포를 그도 읽은 것이다. “그들의 아픈 상처를 대하면서 웬지... 웬지 자꾸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어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섰던 지난날들이 생각나고...” 그는 이제 어두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한국과 베트남인들이 진정으로 화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무고한 양민이 희생됐다”는 베트남인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군에게 노근리 주민들은 게릴라처럼 보였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게릴라로 보였습니다. 서로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민간인들을 ‘베트남의 식량생산대원’ 또는 ‘베트남의 정보대원’으로 봤습니다. 순수한 민간인과 양민은 없다고 봤지요.” 그는 아이들과 여자들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꼬마들이 ‘따이한 쯤, 쯤’ 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졸졸 따라옵니다. 그러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주지요. 바로 그때 수류탄을 까고 바람처럼 정글속으로 사라진단 말입니다. 아가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양민학살은 절대 없었다”고 딱 잘라 이야기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모호한 점이 많다. “베트남들은 우리와 총소리가 틀렸어요. ‘따~쿵’ 처럼 들리는 소련제 아카보 소총이었지요. 그 소리가 한번 날 때마다 우리 전우들이 한명씩 죽어 나가는 겁니다. 밀림속에 있는 베트남 저격병들이 쏜 거지요. 한번 그러면 그 인근의 마을을 무차별 공격해 버리지요. 아예 불살라 버립니다. 그곳은 베트남의 근거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속에 애들과 노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양민을 보호한답시고 그 마을의 집앞까지 가서 ‘양민은 왼쪽으로 모이시고, 베트남군은 오른쪽으로 모이시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는데...” 그는 구체적인 작전날짜와 이름, 해당지명은 기억하지 못했다. 단지 판랑, 까두, 동바틴, 혼바산, 동보산 등에서 작전했다는 사실만을 잊지 않고 있을 뿐이다.

“베트남에 간 것이 죄였다”

권상일(54)씨의 기억은 이보다 조금 구체적이었다. 전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그는 69년 3월부터 70년 5월까지 맹호부대 해산진 10중대에서 첩병 생활을 했다

(당시 상병). 그의 주작전 지역은 쾨는 부근. ‘첩병’이란 작전시 가장 선두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며 수색·정찰·매복을 하는 병사를 말한다. 그는 작전과정에서 지뢰를 두번 밟고 부비트랩을 한번 밟은 아찔한 경험도 있다. 어찌된 일인지 그는 천만다행으로 살았지만, 뒤에 오던 전우들이 목숨을 잃은 가슴아픈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베트남전에서 7명을 조준해서 죽였다는 이야기도 했다. “69년 5~6월께의 일이었습니다. 쾨는의 면장마을 근처였어요. 밤에 매복을 나가 베트남이 오고갈만한 길목을 지키고 있었지요. 할머니와 아가씨가 사방을 주시하면서 앉아있더군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 소총을 든 베트남이 오는 겁니다. 집선하려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먼저 쏘았죠. 죽었는지는 모르겠고... 쓰러진 것만 보고 뛰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베트남에 당한 줄 알고 후퇴했던 아군 병력들이 다시 돌아와 할머니와 아가씨를 죽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또 다른 작전. “분대작전이었어요. 민간인 통제구역이었던 맞은편 산으로 정찰을 나갔는데 아군 진지가 있는 곳에서 민간인들이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40대 여자 세명이 도망가길래 다 사살했습니다. 불을 피웠던 남자 1명과 여자 2명도 죽였지요. 물론 불을 피운 사람들에 의해 우리 병력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 인근 마을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했고, 쌀을 줬다는 소문을 얼핏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전. 그는 69년 8월 면장마을에서 북방으로 3km 떨어진 지역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 대대단위의 작전이었다. 인근지역의 베트남을 섬멸한다는 목표 아래 위장 철수작전을 폈다. 헬기를 통해 모든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처럼 보인 뒤 100여명의 중대병력만 남아서 매복해 있었던 것이다. “헬기가 떠나고 사위가 고요해지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디선가 뛰어나오더군요. 한 30여명 됐던가? 애들부터 어른까지 박 좋아하면서 웃고... 우리가 남겨놓은 씨레이션을 먹으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공격 명령이 떨어지니 총들이 불을 뿜고... 도망가고...쓰러지고...”

그는 심장이 안 좋다. 베트남전 이후 그는 가슴에 압박감이 와 잠을 편안히 못 잤다. 그동안은 먹고살기에 바빠 그냥 참아왔다. 그러다 최근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왜 그 이국땅까지 가서 베트남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설사 베트남이라 해도 우리가 죽일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심장이 별떡별떡 뻥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든 윗사람들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전주 시내에서 서점을 경영하는 김주황(53)씨. 70년 6월부터 71년 7월까지 9사단(백마부대) 28연대 연대본부 범죄수사대(당시 병장)에 있었던 그도 같은 말을 했다. “이 전쟁은 군사정권이 정치적으로 미국과 결탁해서 우리를 사지로 보낸 겁니다. 우리가 ‘용병’이 아니고 무엇이였습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투이호아 시내에 널브러진 시체들

투이호아 지역에 있었던 그는 당시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 “1대대인지 3대대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한 날짜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다섯대의 드럭에 베트남인들의 시체를 가득 싣고 와 투이호아 시내에 널어놓는 적이 있습니다. 거기엔 꼬마들도 있고 할머니도 있었지요. 밤에 배드롱 가족들이 이동하다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한국군이 배드롱의 예상 이동로에 크레모아 6백여발을 설치하고 매복중이었거든요.” 작전지역에서 밤에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한국군에겐 다 적으로 간주됐다는 것이다.

“양민학살? 그건 뭐 사실이지요.” 그는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전우들한테도 들었습니다. 작전하고 나면 전우가 죽어가는데 나라도 그럴 거예요. 감정이 개입할 수 있잖아요. 오버할 수 있지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전쟁입니다.”

맞다. 이건 전쟁이었다. 한국 현대사에서의 전쟁과 항쟁 와중에서도 ‘무고한 죽음’은 술하지 않았던가. 김주황씨 장인어른의 어머니는 6·25때 한국군에 의해 죽었다. 전북 순창지역에서 국군이 빨치산 소당작전을 펼치는 와중에, 작전지역에서 피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쏘아죽인 것이었다. 당시 작전을 뒀던 국군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가 빨치산 내통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건 양민학살이 아니다.” 김종철씨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내 친구의 친척이 광주사태 때 죽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였는데 계엄군이 정지 명령을 하자 무서워서 그냥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즉사했죠. 데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는데...” 당시 그를 쏘아죽인 계엄군도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그가 양민인지 어떻게 아느냐. 폭도인지도 모른다.” 김종철씨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광주학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족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는데... 이민 죽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당시 백마부대장이 모든 부대원들에게 항상 소지하라며 나눠준 수첩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 적을 먼저 발견하자. 대항하는 적은 쏘아죽이고, 쫓아죽이고, 때려죽이고, 물어뜯어죽이고, 최후의 순간까지 단 한명의 적을 죽이고 나서 죽지, 절대 그냥 죽을 수 없다.”

-한겨레21 289호-

아군의 머리에 총을 들이댄 이유

청룡부대 소대장 유재준씨의 증언... “베트남의 원혼에 꽃다발을 던지고 싶다”

황상철/한겨레21 기자

“쏘지마 이 새끼야!”

유재준 소대장은 카빈총을 그의 머리에 들이댔다. 불길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마을을 삼키고 있었다. 유 소대장이 총을 겨누는 대상은 베트남이 아니었다. 베트남 민간인도 아니었다. 그는 아군이였다. 눈에 핏발이 선 1소대 하사관이였다. “베트남 마누랍니다. 쏘야 합니다.” “안 돼. 총 치워!” 두 사람의 앞에는 40대로 보이는 베트남 여자가 사색이 되어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대여섯살쯤 보이는 천진난만한 얼굴의 여자아이 한명과 함께. “까블지 마. 널 쏘버린다.” 마을을 울리는 총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 소대장의 총은 하사관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하사관은 총을 내린 채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모두 이성을 잃고 있었다

소대원들은 눈빛부터 달랐다. 소대장을 포함해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눈이 시뻘게 있었습니다. 하사관도 소대장의 복수를 하겠다고 덤벼든 것이죠.” 유씨는 마을 주민이 달아나다 총에 맞는 것을 목격했다. 마을 여기저기서 주검 몇구를 봤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정확히 몇명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시체를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들여다볼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한군데 주검이 모아져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비춰 민간인들이 사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움직이거나 뛰면 난사를 했습니다. 개를 쏘버리는 일도 있었고. 그 여자와 아이도 뛰거나 도망했다면 쫓을지 모릅니다.”

그때 자신은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하사관이 자리를 뜬 뒤 그는 여자에게 작전지역 밖으로 가라고 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애를 데리고 떠났다.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죠.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유씨는 다른 마을에서도 한 사내아이가 도망가도록 내버려둔 적이 있다고 했다.

66년 10월의 어느 날. 2소대와 3소대는 날이 밝으면 한 마을을 공격하기로 돼 있었다. 새벽에 2소대장을 마을 입구까지 안내하고 3소대로 돌아올 때였다.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났다. 무전으로 확인하니 1명이 죽고 2소대장 등 3명이 부상 당했다. 개울에 숨어 있던 베트남 2명이 수류탄을 던지고 달아난 것이다. 날이 밝자 소대원들은 마을 50여m 앞에서부터 제압사격을 하면서 마을을 공격했다. 갑자기 대원들이 소리쳤다. “저기, 애가 도망간다!” 7~8살된 사내아이가 숲으로 도망갔다고 했다. “집을 수색하던 2소대원들이 민간인 7명을 잡아서, 세워놓고 사살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죠. 그때 그곳에 있던 아이가 도망간 것입니다.” 대원들이 추격하려고 했다. 유씨가 숲으로 뛰어들려는 대원들을 말했다. “씨를 말릴 수는 없다. 다음에 커서 원수를 갚겠다고 오게 살려줘라.”

유씨는 소대원들한테 무모한 살상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장터는 살기 위해 죽어야 했다. “마을을 지나가는 데 뒤에서 ‘탕’ 소리가 났습니다. 소대원 1명이 허리가 구부정한 70대 노파를 쏘버렸습니다. ‘왜 쏘냐?’ 고 물으니 ‘거처적거린다’ 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당시는 전투상황이었습니다.”

유씨는 토림마을에서 부하한테 총을 겨누면서까지 민간인을 살려줬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을 뿐이다. 그는 정반대의 경험도 했다. 살려주려 했던 민간인들이 오히려 처참하게 죽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다.

66년 11월 청룡부대는 쿠앙옹아이성 선탄현 일대에서 대규모 소탕작전인 ‘용안작전’을 벌였다. 작전 3~4일째 되는 날 오전, 3소대는 한 마을을 공격했다. 주민들이 우왕좌왕해 다 잡아 모았다. 다음 목표로 가는 산길이 나 있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공격을 받을 것 같았다. 유씨는 모아놓은 사람 가운데 30대로 보이는 남자 3명을 뽑았다. 베트남 낫을 찾아오라고 해 이들을 앞세워 정글을 헤치고 산을 올랐다. 얼마쯤 올라가니 바위 밑에 널빤지가 있었다. 손을 대보니 온기가 느껴졌다. 자신들을 저격하기 딱 좋은 위치였으니 베트남 사람들을 앞세운 덕분에 저격을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날 오후 3소대원 1명이 부상을 당했다. 향문에 총을 맞아 모르핀주사도 놓을 수 없었다. 문짝을 뜯어 그 위에 병사를 눕히고 베트남인 3명과 소대원 1명이 들었다. 유씨는 소대를 급히 도로쪽으로 이동시켰다. 상황이 좀 안정되자 베트남인 3명이 자신들을 놓아달라고 사정했다. 그는 “지금 가면 죽는다. 조금 더 기다리라”고 했다. 작전 중인 한국군에 사살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살려주고 싶었다. 유씨는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신변보증서’를 썼다. “이 사람은 한국군에 협조했으니 살려줘라.” 메모지 아래 사인을 하고, 나중에 한국군을 만나면 보여주라며 건넸다.

그때 100여m 떨어진 곳에서 전투를 하던 1소대장 김아무개씨한테서 무전이 왔다. 3소대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1소대원 2~3명이 판초우

의에 주검을 싸서 어깨에 메고 왔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함께 도착한 1소대장은 베트남 사람 3명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M16소총을 번쩍 들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어 월남놈 있네...” 그리고는 트르르륵 갈겨버리는 것이었다. 말릴 틈도 없었다. 유 소대장을 도와준 베트남인 3명이 피를 튀기며 쓰러졌다. “야! 새끼, 너 까블래!” 벌떡 화를 내며 일어섰지만 소용 없었다. “1소대, 전부 다 후퇴!” 1소대장은 못 본 체하고 중대기지로 내려갔다.(<한겨레21>은 1소대장 김아무개씨를 수소문했다. 1주일 만에 전화연결이 됐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는 완강히 부인했다. 이 반응에 대해 유재준씨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 죽인 걸 인정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내가 옆에서 본 걸...”)

베트남인 3명의 서러운 영혼

베트남인들은 바로 죽지 않았다고 한다. “고통에 못이겨 뱀처럼 몸을 비비 꼬았습니다.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겠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던 포병 연락장교가 권총을 그들의 머리에 겨눴다. 탕! 탕! 탕! ‘편안한 죽사’를 선택해준 것이다. “결국 내가 데리고 있어 죽은 겁니다.” 유씨는 대원을 잃은 1소대장이 ‘눈이 뒤집혀’ 베트남인을 쏘죽였다고 했다. 하루 전에도 그런 ‘분풀이’를 목격했다.

1소대와 3소대가 합류해 다음 공격목표로 가려던 참이었다. 버지지 않은 로켓포탄이 있어 베트남이 숨어 있을만한 굴에 넣고 TNT와 함께 터뜨렸다. 그때 마을에서 총알이 날아왔다. 1소대가 마을로 들어갔다. 유씨는 1개 분대를 이끌고 예들러 마을로 들어갔다. 한국군과 비슷한 군복을 입은 5~6명이 도망쳐 그들을 사살했다. 총도 1정 노획했다. 그 마을에서 1소대 기관총 사수와 부사수가 전사했다. 1소대장이 베트남의 주검이 있는 곳으로 왔다. “화가 나 입술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총에 대검을 꽂아 시체에 던지자 총이 탁 꽂혔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갈라 찢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독이 올랐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때 그 아이를 보고 싶다

함께 있던 베트남인 3명이 죽던 날 저녁, 유씨는 전쟁의 비극을 다시 한번 실감해야 했다. 그가 중대기지로 내려와 소대원들과 함께 모여 있었을 때, 갑자기 탕!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엎드렸다. “어디서 났냐?” 소대원들이 모두 웅얼웅얼하며 얼굴을 피했다. 한 소대원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너, 총에 맞았냐?”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손을 쏘버린 자해사건이었다. 기가 막혔다. “왜 너를 쏘냐!” 고 호통을 치며 절대로 후송시켜주지 않겠다고 엄

포를 놓았다. 그리고 보초를 서라고 지시했다. 자해를 한 대원은 손에 피를 흘리면서 갔다. 그때 1분대장이 다가와 사정했다. “저놈이 3대 독잡니다.” 결국 대원을 병원으로 보냈다. 한국에 돌아와 진해병원에서 그 소대원을 만났다. 얼굴이 마주치자 그 대원이 숨어버렸다. “숨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는 전쟁터도 아닌데...” 그러자 소대원이 돌아와 인사를 했다고 한다.

유씨는 5년 전에 위암으로 위의 일부를 잘라냈다. 병치레로 의항선을 타면서 모았던 돈을 전부 날렸다고 한다.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는 20대 중반의 한창때였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 그는 이제 “베트남과 양민을 구별하기 힘들었다”는 말로 한국군의 민간인 사살을 덮으려하지 않았다.

“숨김없이,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비전투원을 쏜 것은 잘못됐습니다. 내 총에 맞지 않기를 바랐지만 군인으로서 나는 또 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간접적으로 내 부하들에 의해 희생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애석하고 참회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제는 시간도 흘렀고, 숨진 민간인들의 영혼이 안식을 구하도록 기도하고 꽃다발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살아 있다면, 유씨는 토림마을에서 봤던 여자아이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베트남쪽에 알아봐 달라고 <한겨레21>에 부탁했다. “그 아이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네들 상처가 워낙 깊을 텐데, 내가 살았던 것은 나 때문이었다고 할 수도 없고...”

-한겨레21 296호-

강간과 민간인 집단사살은 실제로 있었지만...

베트남전쟁 참가 전투소대장들 35년 만에 입열다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우식’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소대장.

1965년 베트남에 파병된 청룡부대 2연대에는 정우식 소대장과 최우식 소대장이 있었다.

두 사람은 해병간부후보 33기 동기로 절친한 사이였다.

같은 날 베트남에 파병됐고, 똑같이 부상을 입고 귀국했다.

여태껏 전우애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을 바라보는 현재의 시각은 서로 다르다.

정우식 소대장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전쟁이었다”고 평했고,

최우식 소대장은 “나라의 경제건설에 결과적으로 도움을 준 의미있는 전쟁”이라고 했다.

그런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솔직했다.

전투현장에서 벌어졌던 ‘불미스러웠던 일들’도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들의 증언에는 부대원들의 ‘강간’과 ‘민간인 사살’ 사례도 나온다.

그것은 35년만에 최초로 참전 군인의 입을 통해 공개되는 베트남전쟁의 그림자들이다.

두 소대장은 그 불미스러웠던 일에 대한 사과문제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피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가해자가 있다.

노근리 사건의 그 후는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노근리 피해자들은 거의 반세기 동안 한을 품고 살아왔다. 그들은 알고 싶어했다. 미군이 왜 비무장 피난민에게 총을 쏘아 댔던 가를.

이제 노근리의 피해자들은 그 쌓였던 한을 풀어 가고 있다. 가해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해미군은 그날의 현장을 둘러봤고 피해자와 부둥켜안고 울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이민족 군대에게 당한 민간인의 한은 한국전쟁에서만 있었을까?

한국군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베트남 민간인들의 한의 무게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노근리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최근 한국(시사주간지 『한겨레 21』과 시민단체 '나와 우리'가 앞장서고 있다)과 베트남에서 제기되고 있는 베트남전쟁 당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례들은 실로 충격적이다. 그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베트남에는 수많은 '노근리'가 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에서 4천6백87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는 그와 비슷한 수의 베트남 민간인들이 한국군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보고 있다.

우리 국군은 정말 그토록 많은 노근리를 만들어 냈을까?

1965년부터 1969년까지 주베트남 한국군 초대사령관으로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채명신(73, 대한해의참전전우회장) 예비역 장군은 1999년 12월2일 『한겨레21』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베트남 양민들이 한국군에 죽고 강간당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면서 "지금으로서는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1999년 12월 10일 서울 장충동 여성사회교육원 강당에서는 '과월 한국군의 양민 학살 의혹 규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나와 우리' 대표 김현아씨(33)는 "베트남에서의 양민학살은 피해자의 증언이 있을 뿐 아직 가해 한국군의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나서서 학살에 대한 사실규명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세기는 전쟁의 시대였고 그래서 야만의 시대였다. 그런 시대와 결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한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가 가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우리는 노근리에 대해 미국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요구를 떳떳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통신사 AP는 노근리 현장의 비극을 연출했던 참전미군을 찾아내 진상규명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1994년에 노근리를 처음으로 현장취재해 노근리 사람들의 한을 드러냈던 기자는, AP의 '너무 늦은, 그러나 깔끔한' 마무리에 대해 고마워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은 AP에게 진 빚을 베트남 피해자들의 한을 푸는데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기자는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한국군 전투 소대장들을 찾아나섰다. 소대장은 사병들과 함께 직접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있을 뿐더러 당시의 상황과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응한 전투소대장들의 35년 만의 증언 속에는 위 채명신 장군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 내용도 있었다. 그들은 자기 휘하의 사병들이 "강간도 했고, 비록 보복차원이긴 하지만, 민간인들에게도 한뼉힐 만한 피해를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점을 강조했다. "그래도 노근리와는 다르다. 베트남은 전

선이 따로 없었다. 게릴라전이었기에 모든 베트남 사람을 일단 의심해야 했다. 현재의 기준으로 당시를 평가하지 말라."

두 소대장은 모두 인터뷰 때 녹음을 사전허락했고, 기자가 작성한 초고가 인터뷰 내용과 다름 없음을 확인한 후 기사화를 허락했다.

첫전투부대 첫전투 첫전과-사회복지학과 교수된 정우식 소대장 "아무런 명분도 없었던 전쟁 일부 잔혹행위는 정부차원에서 사과해야"

서강대 다산관 625호실.

노크를 하고 들어서니 정우식 교수(58세)는 수녀 학생과 이야기를 막 마치고 일어서고 있었다. 정 교수는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기자를 맞았다.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의 오늘 그 어느 구석에서도 베트남전쟁 참가 전투소대장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전쟁과 평화

정우식 교수의 과거와 현재는 그 극단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그는 1965년 22세 때 청룡부대 소대장으로 베트남에 참전했다. 그의 소대원 55명 가운데 15명이 전쟁터에서 숨졌다. 그 자신도 머리에 파편을 맞아 긴 후유증으로 고생했다. 그는 전쟁의 모든 것을 맛보았다. 그런 그가 지금은 학생들에게 '평화'를 전도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돼 있다.

정 교수는 1999년 12월 기자와 가진 두 차례의 여섯 시간 녹음 인터뷰에서 "지금 되돌아보면 월남전은 명분이 전혀 없었던 전쟁이었고, 따라서 병사들의 입전태세는 한국전쟁때의 그것과는 아주 달랐다"고 말했다.

"참전 첫날 '전쟁의 목적'은 다른 데 있음을 느꼈다"

청년 정우식은 서강대 사학과를 졸업하자마자 해병 간부후보 33기생으로 입교했다. 1964년 3월 11일이었다. 그가 해병대를 지원한 것은 해병대 장교의 복무연수가 다른 장교에 비해 짧았기 때문. 그는 빨리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에 유학갈 작정이었다. 1965년 5월경 그는 자신의 부대가 베트남에 파병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임무가 하나 더 늘어났다. 전투부대로서는 최초로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있었기에 겁많은 사병들은 부대를 이탈했다. 그래서 그는 탈영병을 찾아오는 일도 해야 했다.

사실 그도 안 갈 뻔 했다. 그는 6형제 중 셋째였다. 그의 둘째 형은 육사 17기였는데 이미 공병부대 중대장으로 베트남에 가 있었다. 그의 큰형이 나서서 군당국에 사정을 했다고 한다. 한 가족에서 두 명씩이나 사지로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그래서 그는 일단 파병자명단에서 빠졌다. 그러나, "내가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오운진 대대장이 나를 불러 이렇게 말하더군요. '진국이래 최초로 대의명분을 위해 해외에 가는데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직분을 회피하겠느냐, 부대의 사기도 있으니 장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생각해봐라, 24시간의 여유를 주겠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톨릭 신자였는데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유용하게 쓰실려면 나를 보호해 주겠지. 만약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베트남에서 죽어도 괜찮다, 그게 하나님 뜻일 테니까'. 베트남에 가기로 결심하고 돌아와서 대대장에게 이야기했더니 나를 껴안고 울더라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정우식 소대장은 1965년 10월 5일 부산항을 떠났다. 이봉출 준장이 지휘하는 청룡부대 5천명과 함께. 청룡부대는 3개 대대였는데 그는 2대대 5중대 3소대장이었다.

청룡부대는 1주일간의 항해 끝에 캄란 항구에 도착했다. 정 소대장은 도착 첫날부터 '비정상적인 전쟁'의 냄새를 맡았다.

"캄란 항구에 내리자마자 바로 야산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첫 식사로 나온 것이 깡통에 든 컴뱃레이션이라는 거였죠. 전에 먹어 보지 못했던 것이라 깡통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제조일자가 1930년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레이션을 우리에게 준 것이지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전쟁을 통해 잉여물자를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음식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마치 죽으러 간 놈들 먹거나 많이 먹어라는 식의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실 실 준비하던 베트남 민간인들의 죽음

첫 번째 전투는 11월말경에 있었다. 정우식 소대장은 그 전투에서 다시한번 이상한 전쟁을 경험했다.

"최초의 전투는 캄란작전이었습니다. 미군과 협조하여 베트남이 점령하고 있다는 산을 탈환하는 것이었죠. 미군 팬텀폭격기 16대가 4개조로 날면서 선제공격을 하고, 한국해병대는 105미리 곡사포를 약 한 시간동안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병이 들어갔죠. 그런데 목표물인 산을 점령하기까지 베트남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든 생각이지만 그때 실제로 베트남을 소탕하기 위해 그런 작전을 펼친 것이 아니라 전투훈련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다 불행하게도 그 작전에서 미군 폭격기가 우리 보병에게 폭탄을 투하했어요. 오폭이었죠. 결국 베트남

콩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우리만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거죠. 최초 전투부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니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 수 없었죠."

전쟁터에서의 '여러 생각'은 담요부대를 목격하고 나서 하나 더 보태졌다.

"그때 미군들 상당수가 참전의 명분이 없다면서 마약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인지 몰라도 미군 장교들도 위안부를 받아들이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미군하고 거의 같은 진영에 있었는데 미군들이 베트남 여성을 서너대의 트럭에 30여 명씩 싣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곤 했죠. 그러니 내가 우리 사병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해도 설득력이 없잖아요. 우리 사병중에는 담요부대와 섹스를 하고도 돈도 안 주는 못된 짓 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였기에 일부 병사들은 일부러 자해를 했다고 한다. 부상병이 되어 하루 빨리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전쟁터에서도 새해는 왔다. 1966년 1월, 청룡부대는 캄란에서 북쪽 투이호아로 이동했다. 그곳은 베트남들의 움직임이 많았던 지역이어서 본격적인 전투가 계속됐다.

정 소위는 청룡부대 '최초의 전과'를 만들어냈다. 그 전과는 쓸쓸한 거였다.

"조그마한 산봉우리를 포위해서 올라가는데 베트남 한 명이 나무에 그물을 매달아 놓고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전은 영화와 달라요. 그 베트남을 보는 순간 떨어져 총을 쏠 수 없더라고요. 행여나 적이 피를 쓰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옆의 하사관에게 சொ라고 했더니 그 놈도 떨어지지 총을 쏘긴 쏘았는데 그만 놓쳐 버렸어요. 잡은 것이라고는 그 베트남이 버리고 간 실탄과 칼빈소총이었어요. 그게 아마 청룡부대 최초의 노획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위에다가 가는 아마 그 베트남을 잡았다고 보고했을 겁니다. 그땐 과장이 심했어요. 2명을 죽였으면 더 많이 죽었다고 보고하는 식이었죠."

정 소위의 기억에 가장 진하게 남아 있는 전투는 1966년 1월 20일에 벌어졌다. 그 전투에서 그는 수많은 죽음을 보았다. 그 스스로도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신음했다.

그 날은 구정 휴전이 시작되는 때였다. 구정 전후로 3일간 전투를 중지하자는 양측의 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한 날이었다. 발효 시각은 낮 12시. 그런데 그날 오전 상부의 명령이 떨어졌다. '베트남이 주민들이 수확해 놓은 벼를 가져 가려고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들을 차단하라'.

"부대를 이끌고 그 마을로 접근해 들어가는데 11시45분에 특이한 상황을 목격했어요. 철모를 쓰고 정규복장을 한 군인들의 움직임을 본 거죠. 즉각 보고했죠. 그랬더니 우리 뒤에 배치된 포부대에서 그 마을로 포를 쏘아대기 시작됐어요. 우리부대도 어깨에 메고 다니는 3.5인치 박격포를 쏘아댔지요. 그러다 보니 정전 발효시각

인 12시를 넘겨 12시15분까지 포를 쏘아댄 거예요. 우리가 협정을 위반한 것이죠."

정 소위는 그때 처음 민간인들의 처참한 죽음을 목도했다.

"그렇게 포를 쏘다가 한 시간쯤후에 그 마을에 들어가 봤지요. 설 설 준비를 하기 위해 떡을 만들고 전을 부치고 있던 민간인 서너 명이 여기저기 피범벅이 되어 나뒹굴더군요.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날아가고.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했는지.....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간 쌀을 살아남은 마을 어린이에게 주고 오긴 했지만."

그 시체들 중에 베트남군은 없었다.

플처럼 쓰러지던 두 베트남 청년에 대한 기억

정우식 교수는 35년 전의 현장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사람처럼 표정이 상기됐다. 그에게 민간인 피해에 대해 더 자세하게 물어 봤다.

—그 마을 이외의 지역에서도 민간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사례들이 있었겠지요.

"우리는 민간인으로 위장한 게릴라로부터 시도때도 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동행했던 병사들이 이성을 잃지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민가에 불을 지르거나 주민을 때리기도 했지요."

—민가에 불을 지르는데 소대장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마을에 들어갈 때는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완전히 분산해서 다닙니다. 소대장은 각 분대장하고 무전으로 연락만 하지요. 그러니 사병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사병들이 해선 안 될 행위를 하기도 하고."

—해선 안 될 행위라뇨?

"하루는 마을을 수색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어린 처녀와 함께 울부짖으면서 나한테로 왔습니다. 우리 사병이 열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처녀를 강간했다는 거였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병들한테 물어 보니 우리 소대의 한 병사가 정말로 강간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병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그 사병도 자기가 강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처벌은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훈계 정도로 끝났죠. 나중에 귀국해서 그자가 베트남에서 용맹스럽게 싸웠노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죠. 그래 화가 나더군요. 한번은 명동인가 어딘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따귀를 때려줬죠."

사병들의 베트남 여성 추행 이야기는 뒤에 이어지는 다른 소대장의 증언에서도 나온다.

—마을을 수색하다 의심스러운 민간인을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을 시찰하다 보면 대부분 노인네와 어린이들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두 청년을 잡았어요. 베트남인지 아닌지는 최종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 중대장이 나에게 죽이라고 하네요. 나는 내 손으로는 민간인을 못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병사에게 쏘라고 하더군요. 총알을 맞은 두 청년은 플처럼 쓰러지더군요. 마치 짐승을 죽이는 것 같았지요."

정 소위는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날이 갈수록 전쟁의 명분이 없어서 굉장히 회의를 느꼈다"고 했다.

"실탄 한 박스를 신청하면 한 트럭이 나왔어요.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되지요. 그럼 베트남이 가져가고. 미군 전투기가 폭격하러 갔다가 폭격지점을 못 찾으면 수많은 실탄을 바다 속이나 산 속에 그냥 투하해 버려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곳에 와 있구나' 생각했어요. 우리의 파병은 한국경제 건설이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만 것 아닙니까. 그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슨은 후에 알콜중독자로 죽었는데 그의 회고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내가 죽였다.' 그런 명분 없는 베트남전에 우리는 수천명의 아까운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땐 공산군과 싸우러 간다는 명분으로 정신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중에 알고봤더니 베트남군은 공산군이 아니라 민족해방전선의 자주독립군이었어요. 월남군들도 베트남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베트남은 공

산군이 아닌데 우리는 공산군이라는 교육을 받고 간 거지요. 그들은 의식 있는 민족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베트남 민중들이 동조한 거죠. 전투가 아닌 정신적 싸움에서 이미 그들이 이기고 있었던 거지요."

"정부차원의 유감 표명은 외교관계 증진 위해 필요"

정 소위의 부대는 그날의 전투에서 정전협정을 15분간 위반한 것에 대한 보복을 받게 되었다. 그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참호에서 방어하던 그의 부대는 월맹 정규군 2백명과 베트남 2백명으로 구성된 대부대의 기습을 받았다. 정 소위의 부대는 3중으로 포위됐고, 그 과정에서 10명이 죽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정 소위도 머리에 파편을 맞았다. 한국군의 대반격도 시작돼 이 전투에서 월맹군과 베트남군은 모두 1백40명이나 죽었다.

정 소위는 그 전투에서의 부상 때문에 10개월만에 귀국했다.

전쟁은 긴 후유증을 남겼다. 그는 국내에 돌아와서도 몇 년간 풀발을 걸어나지 못했다.

"풀발 위를 걷다가 지뢰에 다리를 잃은 수많은 동료, 부하를 봤기 때문에 멀쩡한 풀발인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멀쩡하게 풀발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도 나는 공포증 때문에 그곳으로 걷지 못했어요. 그 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요법'을 동원했죠. '나의 생각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주문을 외우면서 한 걸음씩 풀발 위로 옮기는. 그걸 한 1년 정도 하니 치료되더군요."

전쟁은 또 그의 전공과목도 바꿔 버렸다. 원래는 제대하면 정치사상사를 공부할 생각이었는데 사회복지학으로 바꾼 것이다.

"전쟁터에서 머리에 부상을 당해 삶과 죽음 사이를 왔다갔다할 때 마치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목숨이 값어치가 없으면 이 자리에서 죽게 하시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나를 살려 주신다면 한국사회에 돌아가 큰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하기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항상 마음 속에 나를 살려준 하나님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 빛을 조금이라도 값는데 필요하겠 다 싶어 사회사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와 헤어지면서 던진 마지막 질문은 '사과'에 대한 거였다.

—베트남전 때 일부 한국군에 의한 집단 민간인 살상 행위가 있었다는 베트남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정부나 참전 군인들이 사과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전수행중에 본의 아니게 했던 잔혹한 행위에 대해선 백번사죄해도 모자라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0여 년 전에 그것도 전투중에 일어났던 일을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자기 동료가 죽고 팔다리가 부러지니까 순간적으로 복수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우리의 외교당국자가 공식적인 유감표명을 해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국적으로 보면 외교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겠지요."

정 교수는 "미국에서 우리 교민이 자주 베트남 출신 미국거주자들의 범죄대상이 되곤 한다"면서 "그것도 일종의 보복"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한 긴장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참전 병사들도 피해자인 셈이라는 거였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은 21세기에든 계속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 정 교수는 "우리 모두가 전쟁이 인권을 얼마나 유린하는지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면서 "각 나라에 인권 의식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와 국민이 있을 때 그런 전쟁, 그런 비극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복수작전 계기 제공했던 '부상당한 소대장' -최우식

"보복차원의 민간인 집단사살은 있었다. 그러나 노근리 학살과는 성격이 다르다"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한 최우식 소위는 청룡부대 2대대 6중대 1소대장으로 참전했다. 그는 "참전 군인 가운데 10% 정도만이 '정말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정신으로 갔는데 나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면서 "베트남전에서 장기복무를 할 생각하고 떠났다"고 했다.

—왜 우리가 남의 나라의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무엇보다 명령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도 대원들한테 교육할 때는 베트남이 한국전쟁때 우리를 도와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 베트남까지 공산화되면 다음엔 우리 차례라고 했죠. 그때 신문에 공산주의 확산 도미노 현상 기사가 많이 났거든요. 돈이요? 돈은 전혀 생각 못했죠.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갔으

니까."

"성추행했지만 처벌은 하지 않아"

강남 올림픽파크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최우식씨(59)는 한 권의 책을 내밀었다. 『전장 그리고 여인들』. 1988년 명지출판사에서 발행된 이 책은 최씨가 "실제로 체험한 월남전쟁 이야기"(머리말)를 적은 것이다. 기자는 책의 차례를 훑어보면서 물었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은 머리말에 밝힌 대로 모두 사실입니까.

"첫 대목에 우리집사람을 등장시켜 비유한 것 말고는 다 사실입니다."

최씨는 1974년에 이 책의 초고로 『한국일보』 신춘문에 년픽션 부문에 당선된 적이 있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베트남 참전 한국군'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장면들이 솔직하게 그려져 있다. 예컨대 앞 부분에 나오는 강간 이야기도 그렇다.

최 소위가 각 분대장에게 무전기를 통해 대열을 통제하며 진격하고 있을 때였다. 한 골목의 모퉁이에 들어서려는데 노파인 듯한 여인의 울부짖는 악다귀 소리가 들렸다. 최 소위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그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때 대원 한 명은 공포를 쏘아대며 눈을 흘기며 육지거리를 퍼붓고 있는 노파를 쫓고 있었고 딸인 듯한 젊은 여인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맨발로 집 안채에서 마당으로 뛰쳐나와 숨을 할딱거리고 있었다. 김 상병이 이끄는 이들 조원들은 최 소위를 보자 모두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우물우물거렸다.

최 소위는 상황을 직감했다. 강간? 소대장과 분대장의 지휘가 직접 닿지 않게 된 이들 병사 중에 성욕이 유별나게 왕성한 자가 있어 마치 고양이 앞의 쥐 꼴이 된 젊은 여인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게다. 그것도 베트남 소굴이니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낄 수가 있었던 게지.(76쪽)

—정말 강간을 한 것입니까.

"내 명이 현장에 있었는데 두 명이 그런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지요."

—군사재판에 회부되진 않았나요.

"내 명 모두 불러다가 군사재판이 열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나로서는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러나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1965년 12월 중순 투이호아현의 한 마을에서였다. 앞의 정 소대장 증언과도 줄거리가 닮았다. 투이호아현 주민들은 최근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여성 강간 사례는 적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수작전 "마을 사람 모두 모아놓고 사살"

최 소위의 소대는 주로 수색정찰을 담당했다. 그는 "베트남전쟁이란 마치 게으른 여인의 긴 머리칼 속에 숨어 사는 이를 잡는 작업과도 같은 것이기에 정글 속에 숨어 있는 베트남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았다"고 했다.

모두 2백56쪽인 그의 책에는 '복수'라는 제목의 장이 있었다.

—책 속의 내용을 보면 복수의 상대가 민간인이었는데, 어떤 때 그런 복수를 하게 됩니까.

"우리 대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때 잔인한 복수가 종종 있었지요.....무조건 총질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마을에 들어가면 대민사업을 많이 하죠. 그들의 사상을 돌이키기 위해 물품도 주고 어린이 놀이터도 지어 주고 다리도 놓아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민간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저격했을 때 진짜 인정사정 없이 불도 지르고 그랬죠. 우리 동기생 이종길 2소대장이 나랑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1966년 1월 2일 청룡 1호작전 때 장교로는 첫 전사를 했습니다. 그럴 땐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지요. 내가 1966년 5월 부상 당했을 때도 우리 소대원과 다른 소대원들이 합세해서 복수를 했습니다."

최 소위는 1966년 5월 14일경(그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14일경'이라고 했다) 푸옌성 투이호아현의 푸헵(Phuhiep) 마을에 베트남들이 식량과 무기를 은닉해 놓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대 분대를 이끌고 공격에 나섰다. 최 소위는 한 여우굴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여우굴에 숨어 있던 베트남이 수류탄을 위로 던져댔다. 그 바람에 최 소위와 하사관이 중상을 입고 대동했던 월남형사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여섯 명이 사상했다.

그 사건에 대한 복수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최씨가 쓴 책에는 그 복수 이야기가 나온다. 한 대원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최 소위에게 '그후 벌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전한다.

"하여간 잘 왔다. 그 동안 부대소식 좀 들려다오."
 "소대장님께서 다치신 다음 여단장님과 대대장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는 여단장님께서 직접 헬리콥터로 현장까지 가 보셨고, 대대장님께서도 권총을 빼들고는 진두지휘하시면서 모조리 쑥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 죽은 사람도 많았겠구나."
 "말씀 마십시오. 퓨엵 마을은 작살이 났습니다. 왜, 마당에 모아놓았던 동리사람들 있잖아요. 모두 사살시켜 버렸는데 총 53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집은 한 채도 남기지 않고 몽땅 불살라 버렸습니다. 어찌나 악이 돌치던지 개새끼까지 모조리 없애 버렸습니다."(173쪽)

—정말로 53명이나 죽었습니까? 마을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어린이나 아녀자나 노약자들뿐이었을 텐데.

"내 책에는 그렇게 써 놓았는데.....나는 그때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는 도중이었으니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요. 그 마을이 50여 호 됐는데 애기 두 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20여 명은 되었을 겁니다."

—말이 안 통했을 텐데 민간인들을 어떻게 동네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까.

"소대마다 월남 통역관이 따라다녔죠. 그 사람이 앞장서서 다 모으죠. 보통 아이들과 부녀자와 노인네들뿐이니까 순순히 모입니다. 젊은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젊은 친구라 하면 베트남이든지 월남군이든지 둘 중의 하나니까."

—꼭 그 지역은 아닙니다만, 베트남 피해자 유가족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모이게 하면서 한국군들이 캔디를 주었다고 하던데요. 안심시키려고. 그래서 시체마다 입에 캔디가 물려 있었다고 하던데.

"그 날도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는데."

—그 복수작전을 감행한 부대는 소대 규모였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책에 쓴 것처럼 대대장이나 연대장도 참여했습니까.

"실제로 작전을 한 것은 그날 부상당하지 않았던 우리 소대의 잔여대원과 지원나온 3소대였죠. 대대장은 책에 쓴 것과는 달리 상황이 끝나고 사후 시찰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연대장에 대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동료가 다쳤다고 수십명의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총을 쏜다?

최우식씨의 책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월남전쟁은 총을 쏘고 시설물을 파괴하고 숨은 자를 잡아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민관계다. 아군이 잔인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것이 곧 베트남인들의 선전자료가 되어 주민들의 적개심을 불러 일으켜 협조를 전혀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민간인 사살행위는 제네바협정 위반 여부를 떠나 이적행위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

—민간인 사살에 대해서는 이후에 아무런 처벌이 없었습니까.

"그때 사전교육을 받기로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절대 민간인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저항 민간인을 상대로 복수를 했으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3소대장과 대대장이 상부에 불려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특별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당시의 3소대장과 대대장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김 아무 3소대장은 1999년 12월 16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민간인 집단사살 문제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했다. 오 아무 대대장(1981년 소장으로 전역)은 1999년 12월 17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나는 부하들에게 백 명의 베트남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교육했다"면서 "그런 일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퓨엵 마을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최우식 소위는 그 비극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다시 그 마을에 가볼 기회가 있었다. 1년간 베트남전에 참전한 후 귀국해서 주택은행에 입사했는데 참전 군인들의 월급을 유치하려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고 한다.

"그때 그 마을에 들러봤지요. 아무것도 없이 잡초만 남아 있더군요. 허허벌판. 그 순간 나도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기자는 퓨엵 마을의 35년 전 비극을 들으면서 노근리의 아이들을 생각했다. 3백여명이 희생당한 노근리의 철길에서 살아남았던 아이. 어머니를 잃고 자기 코의 절반을 잃고 한을 간직하며 살아온 노근리의 아이, 정구식씨. 그의 한과 살아남아 있을 퓨엵 마을 아이의 한은 무엇이 다를까. 만약 최 소대장의 기억이 맞다면 퓨엵 현장에서 살아남았다는 두 아이는 지금 40대 전후일 것이다.

최우식씨와 헤어져 베트남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다.

우선 퓨엵성 투이호아현에 퓨엵이라는 마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이 최 소위가 속한 청룡부대 2대대와 '인연'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한 장의 사진

이 그것을 증명했다. 해병학교 제33기 동기회가 1994년에 펴낸 『철맥회 30년사』는 청룡부대의 베트남 참전사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퓨엵 마을을 배경으로 '청룡 2대대 자매부락'이라고 쓴 표지판을 찍은 사진이 실려 있었다.

베트남 당국자의 확인 "46명 죽고, 생존자는 3명"

이제 그 퓨엵 마을에 대한 현지취재를 할 차례였다. 퓨엵성의 바쿠앙 주석(우리의 도지사에게 해당)에게 퓨엵 마을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다. 1999년 12월 16일 오전 바쿠앙 주석은 다음과 같은 답을 보내왔다.

"오늘 아침 퓨엵 마을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 확인해 봤더니 한국에서 취재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일은 1966년 5월 14일이었는데 마을주민 46명이 숨졌고, 생존자는 3명입니다. 그 3명은 어머니와 두 딸이었는데 어머니는 웬티깜씨로 지난 92년에 숨졌고 딸 브리티썬(1961년생)과 브리티농(1958년생)은 현재 생존해 있습니다. 두 딸은 모두 호와히엵사(우리의 면에 해당)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비극의 복수작전이 벌어지기 전에 베트남에 의해 베트남 경찰이 죽고, 통역관과 한국인 소위가 중상을 당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취재엔 구수정씨(34, 호지민 국가대학 역사학 석사과정)의 도움이 컸다. 구씨는 1999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베트남전 당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례를 현지조사해 『한겨레21』 등에 기고해왔다. 퓨엵성의 주석으로부터 그런 답을 듣고 몇 시간 후 다시 최우식씨를 올림피아파크호텔에서 만났다.

—베트남 쪽에 취재한 바로는 그 마을 사람들도 그런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만약 생존해 있다는, 당시에 살아남은 두 어린이를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민간인과 베트남을 구별하기란 정말 어려웠어요."

—일부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했던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

해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나는 사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전의 양상은 한국전쟁과는 다른 게릴라전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몰래 숨어 있다가 수류탄을 던지는 경우가 있고 아줌마도 애를 업고 지나가다 돌아서서 수류탄을 던집니다. 민간인이지만 베트남 가족은 베트남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 적은 아니지만 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게릴라전이니까 노근리 사건하고는 전혀 양상이 다른 것이죠. 노근리에서는 확실한 피난행렬이었지만 베트남에서는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과는 부적절, 참전 지금도 멧멧하게 생각"

—자원해서 흔쾌히 베트남 파병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도 멧멧한 전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부심이 있죠. 군인으로서 전투다운 전투를 한번 해본 큰 경험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짧은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었던 기간이었다고 지금도 느낍니다. 그 많은 부하를 이끌고,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싸웠고, 결국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죠. 또 처음엔 왜 가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갔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갔다왔기 때문에 달려가 들어오고 경제가 부흥된 것 아닙니까. 또 베트남전 경험 덕분에 나중에 우리 예비군들의 전투력도 향상되는 부수적 효과도 있었고요."

최우식씨는 "얼마 전 우리 동기생 망년회에 갔는데 새벽 3시까지 계속했다"면서 "맨날 모이면 월남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모두가 참전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호텔에서 나와 계단을 함께 걷는데 그는 약간 절뚝거렸다. 그의 몸에는 아직도 파편 일곱 개가 박혀 있다고 했다.

최우식씨는 천호동 십자성 마을에서 살고 있다. 그 마을은 1972년 정부에서 준 부상보상금을 받아 부상자 1백1명이 모여서 만들었다. 땅 50평에 건평 14평의 건물 1백1채가 군 공병대의 일부 지원으로 건설됐던 것이다. 세월은 흘렀고, 절반의 부상병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 많은 집들이 개축해 평수를 늘렸다. 그러나 최우식씨는 아직도 그때 지은 14평에서 살고 있다. 그는 그의 말마따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그 시절"에 머물고 싶어한 것처럼 보였다.

최우식씨와 헤어져 전철을 타고 오는데 그로부터 핸드폰이 걸려왔다.

"집에 와서 곰곰이 다시 그때를 생각해봤는데, 정말 민간인과 베트남을 구분하기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가 참 힘들었어요." 전화 받는 이가 탄 전철의 소음을 감안했는지 그는 목소리의 톤을 높였다.

"내가 책에도 써 놓았지만 어떤 할아버지는 대창을 쥐고 있었어요. 그 창은 우리의 목숨을 겨냥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민간인으로 봐야 합니까? 민간인도 준적인 게 베트남전쟁의 특징입니다."

최우식씨. 그는 여전히 최우식 전투소대장이었다.

생존자 브이티농 "한국군 미워하지 않는다"

기사 원고를 넘기고 난 1999년 12월 17일 오후 베트남의 구수정씨로부터 퓨렘의 생존자 브이티농을 전화 인터뷰했다는 연락이 왔다. 당시 아홉 살이었다는 브이티농씨는 "당시를 회상하는 것이 너무 무섭다"면서 "그 현장에서 6개월된 여동생과 열다섯살 오빠를 잃었다"고 했다. 시체더미 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기에 살아남았다는 그는 "그 사건은 이제 과거의 일로 한국군에 대해선 아무런 미움도 간직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과나 피해보상 문제는 한국측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브이티농씨는 또 "그때의 한국군이 다시 현장을 찾아온다면 아주 잘 대접해줄 것"이라고 했다.

-월간 「말」 2000년 1월호-

각계의 반응 : 이제 우리의 침묵을 끝내자

야누스의 얼굴

베트남 참전작가 황석영이 본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양민학살'

황석영 / 소설가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양민학살'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그동안 은연중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햇빛' 아래 드러나는 데에는 적어도 현재 정도의 사회적 여건이 필요했을 터이다.

'라이파이한' 은 얼마나 부차적 문제였나

그 기사를 읽은 무렵에 경부고속도로를 지나 지방 나들이를 다녀오던 날 오후에 올림픽대로에서 교통대란을 만났고 그것이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장병들의 항의 데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원폭피해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죽어갈 때까지 본인 스스로도 불치의 병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까지도 기형으로 태어나 성장하거나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 불구가 되어버린다고 한다.

우리가 위의 두 사실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세계 속에 널려 있는 사물의 양 측면에 대하여 유념하지 않으면 감상에 빠지기 쉽다. 어떻게 보면 '양민학살'에 대한 뒤늦은 조명은 몇년 전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동정적으로 일어난 한인 혼혈아들, 이른바 '라이파이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부차적인 문제였던가를 한마디로 드러내준다. 그뿐 아니라 일본의 우익들이 난징 학살이나 정신대 문제를 거론하는 한국 여론에 대하여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만행'을 예로 들며 방어하기도 한다.

내년이면 6·25전쟁 발발 50주년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전쟁의 올바른 성격 규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분단된 채로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에는 외국의 학계에서는 다 알려진 '한국전쟁'에 대한 어떤 관점이 '친북 용공'으로 몰리기까지 했는데, 더욱 놀랄 일은

그 견해의 발표자가 대통령의 정책기획자문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도 그랬다.

한국전쟁을 일단 접어두고 이 글의 초점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베트남전쟁’의 성격 규명을 해내야만 하겠다. 베트남은 19세기에 프랑스가 강점하여 식민지를 만든 이래로 일본이 점령했다가 다시 중주국이었던 프랑스의 식민지배가 되풀이되자 항불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고, 미국의 개입으로 남북이 갈라지게 된다. 북부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항불 독립운동가들이 주도 세력이 되었고, 남부는 일본이 만주에서 부이를 내세워 괴뢰정권을 만든 것처럼 후에를 중심으로 바오다이 왕조를 세웠는데 초대 대통령 고딘 디엠은 위 정부의 관료 출신이며 그뒤 군사정권의 역대 대통령이 모두 프랑스 식민지 군대의 장교 출신들이었다. 정권 초기부터 반민중·반민족적이었던 남베트남 정권은 폭압과 부패로 이어졌으며 그런 연유로 남쪽의 자유주의적 지식인이나 항불전쟁 당시의 독립운동가 또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고 투쟁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모든 서방의 논문 기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베트남전쟁은 100년에 걸친 ‘베트남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 프랑스 제국주의의 직접 지배와 미국의 제국주의적 간접 지배에 대한 베트남 민족의 저항전쟁이었다. 우리는 위의 사실에서 상징적인 ‘비유’를 우리의 현대사에도 맞추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일제시대 태평양전쟁에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을 위하여 징병이나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 아버지 세대와 냉전시대에 동아시아에 팩스 아메리카나의 블록을 형성하려던 미국에 의해 베트남에 끌려갔던 우리 세대에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양민학살은 필연적이었다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승리하는 전쟁을 수행해오면서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이기지 못한 전쟁’의 쓰라린 경험을 치렀다. 한반도에서는 일찍이 2차대전에서 쓰고 남았던 무기들을 시기적절하게 소비했는데 태평양전쟁 때에 전 지역에서 전 과정에 걸쳐서 썼던 양보다 더 많은 무기를 한반도에 퍼부었다. 도쿄의 미극동사령부는 “한반도는 석기시대로 돌아갔다”고 정의했을 정도였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한달에 20억달러의 군비를 지출하면서 매달 10만t의 폭탄을 투하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수행한 전쟁은 ‘일종의 SF적 전쟁이었으며 한국전쟁 종결 이래 인간 파괴 기술이 이룩한 모든 진보를 시험해본 실험전쟁’이었다(일본의 세균전 요원들과 자료가 그대로 미군에 흡수되고 이것이 한국전 당시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젠 상식이 되어 있다. 이를테면 유사 흑사병인 유행성 출혈열이나 세계 학회에 등록된 한탄 바이러스는 그 잔재이다). 베트남에서는 제네바 협정에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모든 ‘비인도적 살상무기’들이 과감히 사용되었으

며 그것은 민간인과 게릴라의 구별이 없다는 뜻에서 ‘비정규전’으로 불렸다. 이를테면 모든 것을 불태우는 네이팜탄 따위는 일상적인 것이었고, 공중에서 터지고 나서 지상에 퍼진 뒤에 매파편들이 다시 터지는 고풍탄, 수백만개의 인마살상용 침이 일시에 터져나가는 CVB폭탄, DNC(디니트로올터 크레졸)폭탄, DNP(디니트로페놀)폭탄 등의 화학탄과, 각종 가스, 그리고 저 유명한 고엽제가 정글과 마을에 광범위하게 뿌려졌다.

나는 1967년 8월부터 68년 10월까지 베트남의 다낭에서 해병대원으로 근무했는데 출라이 기지에서는 ‘기동순찰병’으로 다낭에서는 합동수사대의 ‘시장조사요원’으로 근무했다. 따라서 국한된 전선의 보병들보다는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전쟁이 미국에서 해방전선과 북베트남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분수령은 68년의 ‘구정 공세’를 기점으로 해서였다.

이 무렵에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는 기존의 ‘색적섬멸’ 작전에서 전환하는데, 게릴라의 근거지가 되는 자연 취락을 분쇄하고 ‘전략촌’을 만들어 베트남 민중을 수용해놓고 전략촌 바깥은 광범위한 ‘자유살상지역’으로 설정한다. 사실상 이 무렵부터 유명한 ‘밀라이 학살 사건’이니 ‘캥트리 사건’이니 하는 양민학살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전략촌 바깥에 걸터다니는 모든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유 살상의 대상이 돼버린 셈이었다.

“피압박자가 피압박자에게 가혹하다”는 말이 있지만 아시아에서 이것은 보편적인 사실이 된다. 무엇보다도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겪었으며, 베트남전쟁을 경험하고 돌아온 장교와 하사관이 참여했던 ‘광주’에서 그 생생한 예를 본다.

한국군 대다수는 가난했던 병사들

파리 소르본에서 교육을 받았고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외교부장으로 나중에 파리 회담에도 참석한 구엔 티 빈이 70년대 초반에 비동맹회의에 나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군의 ‘공식적’ 양민학살 건수는 약 3천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내가 알기로는 그러한 양민학살이 벌어지는 것은 대대적인 작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중대나 소대와 같은 소부대 단위의 매복 수색 정찰 때 일어나기가 쉽다. 살상은 대단위 작전에서 훨씬 더 벌어지지만 인간적 원한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은 인적 접촉이 없이 헬리콥터나 비행기에 의한 폭격 또는 대지공격이나 지상군의 포사격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소 단위 병력은 노련한 지방 게릴라의 저격이나 부비트랩과 같은 장애물 때문에 마을 주변에서 죽고 다치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어긋난 민족감정이나 전우애로 복수심에 불타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 이 무렵에 전선에 투입되었던 한국군의 대다수가 가난하고 굶주렸던(당시에 한국 농촌은 보

릿고개를 연례행사로 치를 만큼 가난했다) 농촌 출신 병사들이었다. 박정희 유신정부와 박태동하기 시작한 한국의 재벌들이 전쟁특수의 이득을 챙기는 동안에 그들의 목숨값은 하루에 1달러50센트 정도였다. 특히 일본은 한국전쟁에서 우리 민족의 피를 대가로 전후 복구를 수행할 수 있었고 베트남 전쟁특수를 통해서 현재와 같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나는 이 세기말에 20세기의 서구사회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저지른 온갖 사악한 정치·군사적 행위를 기억하자는 사람이며, 특히 나는 아시아 사람이므로 아시아에서의 저들의 행위와 우리 자신들의 행위를 조사·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베트남에서의 '양민학살' 과 같은 사건에 가슴아파하면서도 새삼스럽게 우리에게도 과연 서구의 시민들처럼 '휴머니티' 라는 '여유' 가 생겨난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

저 올림픽대로의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불구의 아버지와 아들들을 연민과 회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의 철저한 경제·군사적 봉쇄 아래 지난 십년 가까이 계속해서 스러져간 백만에 가까운 북녘의 내 동포 '아사자' 들을 생각한다. 이것이 세계에 드러난 사물들의 아이로니컬한 양면성이다.

-한겨레21 275호-

노근리, 뇨름, 그리고 이근안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야만' 과 싸우자

방현석/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회원

지난 11월13일자 주요 일간지들에는 <AP 연합>으로부터 받은 똑같은 사진이 빠짐없이 실렸다. 나의 눈을 몹시 거슬리게 만든 그 사진의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어 있었다.

"노근리 주민 현화/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의 생존자인 정은용씨와 정구학씨가 11일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기념지에 장미꽃을 헌화하고 있다." (<한겨레>)

미국이 약자를 철저히 멸시하는 법

사회면 가운데를 할애해서 더 크게 사진을 뽑은 다른 신문의 설명은 조금 더 자상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정은용 노근리 대책위원장과 정구학씨가 11일 워싱턴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있는 참전기념비 앞에 장미를 바치고 있다." (<조선일보>)

용서와 화해,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 미국 정부의 분명한 사죄와 용분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어리진 가슴을 안고 평생을 살아온 피해자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게 만든 것은 지나치게 잔인하지 않은가. 스스로 강자라고 믿는 자들이 약자들을 더 철저히 멸시하는 방법까지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현재의 노근리와 화해하려는 결허한 마음 없이는 역사 속의 노근리와 진정으로 화해할 수 없다. 우리 역시, 우리가 반인류적인 양민학살을 저지른 베트남의 역사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의 베트남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상대를 눈 아래로 보면서 그들과 화해하겠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기만이며 그들에 대한 모욕이다.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의 회원인 나는 세 차례 찾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인의 오만과 자기파시를 한두번 목도한 것이 아니다. 손아귀에 돈뿐이나 쥐면, 자기보다 조금 누추한 나라의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도 된다는 이상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베트남과 진정으로 화해할 수 없다.

지난달 다시 찾은 베트남에서 나는 또 속도 때문에 당황하고 말았다. 한국이 시속 100km의 사회라면 베트남은 시속 50km쯤 되는 사회다. 차선과 상관없이 자전거와 오토바이, 승용차가 한데 어울려 느린 물결처럼 흘러가는 거리에서 나는 호흡도 한두배 천천히 해야 될 것만 같았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일부 관리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여유로움이 경멸받을 느낌이었다. 베트남 노동자들이 한국 관리자들에게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다. 그 속도 때문에 마찰이 일어난다. 악착같이 벌어야 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나라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8시간 노동이 끝나기 무섭게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흘러다니며 긴 저녁을 즐기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 연간 잔업 200시간 초과를 금지하고 주 5일 40시간 노동을 골자로 하는 그들의 제도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조금 나은 옷을 얻기 위해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주권을 짓밟는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호미와 삼태기만으로 250km의 구치터널을 단 돈 한푼도 받지 않고 밤낮으로 판 사람들이다.

나는 처음부터 못내 궁금했다. 무엇이 미군들로 하여금 비무장의 노근리 양민들을 그토록 서슴없이 사살하게 만들었을까, 그들도 사람인데. 3년 전 베트남의 밀라이에서도 같은 의문에 사로잡혔다. 밀라이에서 미군들에 사살당한 504명의 민간인들은 입산부 17명과 어린이 173명을 비롯해 모두 항거불능의 아녀자 아니면 노인들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손쉬운 일에 속하지 않는다.

미군들에게 '얼굴 노랗고 키작은 동양의 미개인'들은 사람에 가깝기보다는 원숭이에 더 가깝게 보였을 수 있다. 상대가 적어도 사람으로 보였다면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얼굴 하얗고 눈 푸른 미군들이 저지른 살육은 그렇다치고 베트남 사람들과 똑같은 피부색을 가진 한국군들에 의해 저질러진 노름 마을의 살육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인종적 편견 아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베트남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었을까.

극우 파시스트의 이념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만든다. 피고문자들로 하여금 한결같이 '고문없이 살해당하기를 열망하게' 만들 만큼 이근안이 모진 고문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에 피고문자들이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극우 파시스트들에게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곧 적이며, 적은 동일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30여년에 걸쳐 우리를 모욕하였던 극우 군사정권을 종식시켰다. 다시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반인류적 학살사건에 대해 분명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

노근리 양민학살의 진상이 밝혀지고 미국의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믿듯이 우리는 한국군이 저지른 베트남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하다. 정부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사과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수행 주체였던 미국의 책임을 우리 정부는 물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시작할 일은 거액의 국가 재정으로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끈기있는 청산작업이다. 반인류적 범죄 행위들을 외면하고 방치하면서 그의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은 폐기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며, 우리가 숙연히 기념해야 할 대상은 그 권리를 현재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이다. 인종, 생각, 문화, 경제적 수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야만과 싸울 의무를 우리는 지니고 있다.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의 회원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겪은 악몽을 청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것들을 적대시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박정희의 연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를 청산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겨레21 284호-

상황논리, 면죄부 안 된다

베트남과 양민을 구별할 수 없었다는 논리는 왜 억지에 불과한가

강정구/동국대 교수·사회학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한국군이 저지른 베트남 양민학살에 대하여 참회와 사죄로 부끄러운 과거사에 용서를 비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노근리 양민학살에 대하여 진정한 뉘우침 없이 또다시 역사를 덮어버리려는 미국의 반역사적인 모습에 울분을 토하던 우리에게 베트남에서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과거사에 진정한 용서를 비는 우리 시민사회의 모습은 한결 자랑스럽다. 노근리의 원한과 고통이 밀바탕이 되어 베트남학살에 대한 참회라는 승고한 발돋움으로 진전되기를 바란다.

북한군과 민간인도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참전군인 일부의 응졸한 몇몇 역사인식과 논리가 극복되어야 한다. 첫째는 상황논리이다. 곧, 베트남과 양민을 구별할 수 없는 특수상황이었고 어차피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양민학살은 불가피하였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사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둘째는 '사죄'는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므로 사죄하지 말고 어정정한 '화해'를 모색하여 어물어물 넘기자는 인식이다.

첫째의 상황논리는 적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중 의도하지 않게 양민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치 과실치사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실치사도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형사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베트남학살은 과실치사 수준이나 직접적인 교전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수준에서 대거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곧, 농사지으러 가는 농부, 노인, 임산부, 스님, 아내와 어린 자식 등 무장을 하지 않은 이들이 대거 학살의 대상이었다. 학살 유형은 작전을 나온 한국군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아 음식을 나눠줘 안심을

시킨 뒤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것이었으며 적과의 교전중에 양민들이 사살된 것이 아니라 작전지구 근처나 교전과는 상관없는 마을이 통째로 학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베트남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없이 집단적 처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위는 상황논리의 불가피성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더이상 전쟁이 아니라 무차별 살인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 베트남과 양민과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한국 전쟁에서도 북한군과 민간인은 인종적으로 전혀 구분되지 않았다. 민간인 대열에 북한군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한국양민을 살상하는 행위를 우리는 상황논리라고 면죄부를 주는가? 노근리학살 등에 우리 자신이 그토록 분노하면서 우리가 저지른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이중 잣대를 댈 수는 없다. 민간인 대열에 적군이 잠입해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전쟁에서나 있는 일이지 베트남전쟁에만 해당되는 특수 상황은 아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과 민간인, 남한군과 민간인이 인종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미군에게나 중국군에게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었지만 중국군의 양민학살은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다. 또 스페인내전에 참전한 인민전선 의용군들은 수십 종의 인종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양민학살은 없었다. 이는 양민학살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상황논리가 경험적으로 반증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참전한 전쟁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참전명분을 뚜렷하게 가졌기 때문에 학살을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파월장병은 민족해방전쟁이고 통일전쟁인 베트남전쟁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몰이해는 파월장병을 위문한 바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잘 나타난다. "한국헌병이 비행장 안까지 들어와 앞뒤로 요란스럽게 호위하고... 경계를 울리며 거리를 질주하면 다른 차들은 운행을 중단하고 기다려야 했다." 베트남주권을 짓밟는 이러한 한국군 아니 박정희독재와 세계의 강대국가인 미국의 오만은 원천적으로 양민학살을 잉태하였던 것 같다. 이 결과 게릴라전쟁인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은 아군 전사 5천여명에 적군 사살 약 4만7천명이라는 무려 10배 가까운 전과를 올리는 이해되지 않는 전쟁기록을 남겼다. 무릇 게릴라전쟁에서는 게릴라군보다 정규군의 피해가 높은 것이 보편적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한국군의 전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이 예외적인 전과와 베트남 양민학살이 직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정정한 '화해' 는 안 된다

일제의 야수적 식민지배에 대하여 '금석의 정' 과 같은 어정정한 일본의 화해

에 분노하여 우리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를 발뺌한 일본에 대하여 원초적 적대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어불성설인 상황논리를 들먹이며 어정쩡한 '화해'를 모색하는 것은 제2의 베트남학살을 저지르는 것과 진배없다. 베트남학살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역사청산이 있었다면 80년 광주의 학살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사에서 제2의 광주를 막기 위해서도 또 새로운 21세기 문명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도 베트남학살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역사청산이 요구된다. “

-한겨레21 296호-

아프간... 체첸, 그리고 베트남!

러시아인들은 한국의 '베트남 사죄운동' 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박노자)/경희대 교수

나로서는 <한겨레21>이 베트남전쟁의 민간인 학살문제를 거론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그 이유인즉, 무엇보다 명색이 역사학자인 나는, <한겨레21>에 의해서 드디어 밝혀진 '따이한' 들의 행동양식이 박정희 집권시기의 한국지배체제의 근본적 성격을 가감없이 잘 반영했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관제 민족주의 담론을 깨뜨려라

유격전쟁에서 민간인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나는 '따이한' 들의 만행이 야만적 광기에 가득 찬 극우반공 체제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본다. 역사학자들 중에서 아직까지 박정희 시기를 '개발독재형 근대화 시기' 로 보려는 이들이 없지 않은데, 그들은 <한겨레21>에서 밝혀진 파월병의 만행이 과연 근대적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최근의 '박정희 신드롬' 에 걸려 그 친일 독재자를 '진정한 민족주의자' 로 보려는 일반 선남선녀들은, 미제에 의한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의 탄압에 박정희가 참여하였다는 것이 과연 민족적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한겨레21>을 읽을 때마다 베트남전쟁 관계기사부터 넘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한겨레21>에 의해서 시작한 국민적인 베트남전쟁 범죄 참회 운동이 우리 러시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 <한겨레21>의 '따이한' 만행 관계 시리즈가 잘 보여주듯이, 이 세상에서 예외없이 영원한 피해국도, 영원한 가해국도 없다. 국가권력과 군대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과거에 많이 당한 민족이라 해도, 대의 '가해' 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다. 수원 제암리에서 1919년에 일군이 한국인을 집단학살한 바로 그 방식으로 반세기 뒤에 '따이한' 들이 베트남인들을 학살했다는 것도, 히틀러에게 미중유의 학살을 당한 유대인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아랍인들을 학살해온 것도,

‘피해자’가 ‘가해자’로 쉽게 변신하는 것을 입증해준다. 그럼에도 한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배층이 ‘피해 콤플렉스’를 내세워 관계 민족주의의 담론을 조작하고, 대중들이 이에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한겨레21>의 진실규명이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탈관계화’시키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본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지배층이 ‘피해 콤플렉스’를 내세워, 군국주의의 정서가 섞인 “우리 군대를 중심으로 다 뭉치자!”는 식의 관계 민족주의를 장려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에 푸틴이 체첸전쟁을 이용하여 인기몰이에 성공한 것도, 체첸 독립군을 ‘침략자’로, 그리고 러시아를 ‘피해자’로 각각 허위선전함으로써 ‘피해 콤플렉스’를 효과적으로 자극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관계 ‘피해 콤플렉스’의 주요 근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소·독전쟁을 일방적인 ‘독일침략’으로 보는 교과서들의 통설과 러시아 시민들에 대한 독일군의 만행을 강조하는 역사 서술들이다.

‘악질’ 러시아군이 던지는 교훈

그러나 스탈린도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독일에 대한 침략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사실과, 독일의 동부를 점령한 소군이 부녀자를 무더기로 강간하고 아이들을 전차로 깔아뭉개는 등 독일 민간인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러시아의 어용사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은폐해왔다. 소련군의 야만적인 모습을 숨기지 않고서는 “우리 군을 중심으로 뭉치자”는 구호를 외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영국에 사는 망명객 빅토르 수보로보(가명)에 의해서 스탈린의 대독 침략 준비과정이 소개됐고, 대독전쟁의 참전군이었던 빅토르 아스타피예프를 위시한 몇명의 양심적인 작가·방송인들이 점차 그 당시의 소련군의 ‘일상화된 야만적 광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체첸전쟁을 ‘또 하나의 위대한 조국전쟁’ (러시아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의 소·독전쟁의 공식명칭)으로 선전하고 “영원한 피해자인 러시아”가 “체첸 강도의 침략을 격퇴한다”고 주장하는 어용 텔레비전 방송을 그대로 믿고, 푸틴을 ‘천부의 지도자’로 보려는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아직까지 소련군의 범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국가의 세뇌도 탓할 수 있지만, 수보로보와 아스타피예프 같은 일부 지식인의 노력이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못하여 국민적 참회운동으로 승화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양심적 지식인들은 <한겨레21>의 성공적 참회운동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사실 러시아인으로서 나라의 범죄에 대해서 참회하려면, 80년대의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90년대의 체첸 침략 등의 순수 대외침략적 성격의 전쟁들을 빠뜨리면 안

된다. 대독전쟁에 대해서 ‘파시즘과의 투쟁’이라는 명분을 내걸 수 있다 해도, 주변의 약소 민족에 대한 침공은 아무 명분도 없다. 그리고 80년대에 아프가니스탄에서 100만명을 넘는 주민을 숨지게 만들고, 지금 무관심한 세계가 보는 앞에서 체첸 수도를 잣더미로 만든 러시아군의 극악무도함은 대독전쟁 그 당시에 비해서 오히려 더 악질화된 것 같다.

그러나, 고 사카호프 박사를 중심으로 한 인권운동가 그룹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참상을 여실히 그려 러시아 민중의 양심에 호소했지만,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아군의 상이병을 동감했지 ‘적’이자 ‘원시인’인 아프가니스탄인의 비극에 무관심했다. 바로 이런 몰지각한 대중의 태도는 푸틴의 제2차 체첸침략을 ‘홍행에 성공한’ 명작으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한겨레21>의 진실규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 수 있다. 과거의 ‘우리’에 의한 만행을 철저히 파헤쳐야 앞으로는 ‘우리’가 만행을 다시 허용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대독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침략의 만행을 똑바로 보지 못한 러시아는, 그 결과로 지금 다시 침략의 길로 돌아왔다.

-한겨레21 300호-

연구논문

한국전쟁과 양민학살

강정구/동국대 교수·사회학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1. 머리말
2. 전쟁 중의 양민학살에 대한 포괄적 양상
3. 작은전쟁과 양민학살: 제주항쟁, 여순항쟁, 아산대, 유격대, 38선총돌
4. 확대전쟁과 양민학살: 보도연맹, 유격전과 양민학살
5. 북한지역 양민학살
6. 미군과 양민학살
7. 맺음말

1. 머리말

최근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미국 AP통신의 발표가 있자 한국전쟁 중에 저지르진 양민학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학살사건이 세계적인 쟁점으로 떠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또 자유와 민주주의의 화신인 미국이 어떻게 양민을 학살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놀라움이었다. 그러나 필자를 비롯한 한국전쟁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놀라기 보다 이 번을 계기로 한국전쟁의 진실, 특히 미국의 행위에 대한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이러한 양민학살에 대하여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지만 전혀 사회적 및 국제적 쟁점이 되지 못하다 미국계 통신사가 대대적으로 발표하자 금방 쟁점이 되는 스캔들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¹⁾

한국전쟁에 관한 한 우리 사회에는 틀에 박힌 정답이 있어왔다. 곧, 전쟁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고 전쟁에 관련된 모든 잘못은 북한에 의해 저질러졌고, 남한은 희생자에 불과하고 미군과 남한군은 거의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정답이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한완상사건이나 최장집사건이나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사건처럼 빨갱이 동조세력으로 몰려 중도하차, 사회적 매장,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까지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반인륜적인 범죄적 행위에 대한 진실은 은폐된 채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는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였다. 이 결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이 저지른 양민학살문제까지도 은폐하는 자폐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동 티모르에 파견된 한국군에게도 또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고 또 은폐라는 죄악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이제 이번을 계기로 이러한 근거 없는 성역은 허물어져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 한국전쟁에 관련된 양민학살은 그것이 미군에 의해서 저질러졌건, 또 남한군, 북한인민군, 이승만정권 등에 의해 저질러졌건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의 차원에서 철저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이 글도 이러한 역사바로세우기의 출발로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문제의 지속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그러므로 양민학살에 대하여 미군의 노근리학살사건보다는 한국전쟁 중 저지러진 양민학살의 모집합 또는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포괄적 구도 속에 노근리 양민학살이라는 부분집합을 자리매김하여야만 노근리학살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가능하다.

2. 전쟁 중의 양민학살에 대한 포괄적 양상

한국전쟁 중에 저지러진 양민학살에 대한 전반적 구도를 포괄적으로 정리해 보

- 1) 최병수·정구도, "6·25動亂 初期 忠北 永同地區의 民間人 殺傷事件에 관한 研究 (I)- 老斤里의 美軍 對良民 集團殺傷事件을 중심으로"에서 재인용: 1. <한겨레신문>, 1994. 5. 4(수) 사회면 기사. 2. Arirang TV in Korea, 1997. 6. 25 방영. 3. <세계일보>, 1997. 8. 25(월) 사회면 기사. 4. <동아일보>, 1997. 8. 26(화), 사회면 기사.
5. 한겨레신문, <<한겨레21>>, 제174호, 1997. 8월. pp.44-46. 6. CNN in the U.S.A, 1997. 9. 8. Arirang TV 방영내용 중심 방영. 7. MBC, 1998. 7. 28 방영. 프로명 <시사매거진 2580> 8. KBS, 1998. 7. 29. <뉴스> 프로에서 합동위령제 취재 방영. 9. 동아일보사, <<News+>>제145호, 1998. 8월. p. 10. 1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계간<<인권>>, 1998년 여름호(9월), 제43호, pp. 52-58.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겠다. 이를 단계적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한국전쟁의 첫 단계인 '작은전쟁'시기인 1948년 2.7구국투쟁에서 6.26전쟁까지의 양민학살이 있었다. 이 전쟁기간은 주로 제주4·3항쟁이나 여순항쟁과 같은 인민항쟁, 유격대투쟁, 38선상의 남북충돌로 특징화할 수 있는 데 이 기간에 10만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²⁾ 이 기간의 양민학살은 주로 인민항쟁에서 발생하였고 또 유격대소탕전의 과정에서 청천벽력작전을 구사하였으므로 주로 산간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학살을 당하였다.

둘째는 6.25전쟁 초기의 양민학살이다. 무엇보다 전쟁 초기 주로 평택이남에 있던 보도연맹원에 대한 이승만정권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학살, 노근리나 이리역 폭파사건과 같은 미군들에 의한 체계적 학살, 북한인민군이 남한을 점령할 당시 토착 공산세력과 인민군에 의한 남한 양민학살(남한 정부의 공식적 발표는 약 129,000명이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수복과정에서 전쟁 중 부역자혐의로 남한군과 경찰에 의한 무차별적인 학살 등이다. 대체로 남한에 대한 양민학살은 전선이 남쪽 땅에 형성되었던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전선이 1951년 봄 이후는 중부에 전선이 고착되므로 단양의 곡계골과 같은 지역에서도 미군의 학살이 이루어졌지만 주로 남한 땅에서의 양민학살 사건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제2전선인 빨치산에 대한 소탕작전 과정에서 저질러진 거창 양민학살사건과 같은 학살이다.

셋째는 미군과 남한군이 50년 10월 1일 38선을 월북한 이후 북한을 점령한 역 4-50일 동안 저지른 북한양민에 대한 학살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172,000여명의 학살이 주로 미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실제의 학살은 미군, 남한 국방군, 서북청년단 등에 의해 저질러졌다.

넷째는 전쟁이 51년 6월이 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전선이 지금의 휴전선으로 고착화됨에 따라 남한에서의 집단적 양민학살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³⁾ 미군의 북한지역에 대한 무차별 공중폭격과 함포사격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과정에서 수십만의 북한 양민이 학살되었다

2)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5단계의 소단계로 분류하여 분석적으로 접근한 글은 강정구, 『미국과 한국전쟁』 『역사비평』 1994 여름호 참조. 이를 일부 수정하여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에 같은 제목으로 실렸다.

3) 물론 이 기간에도 빨갱이 혐의로 재판과 같은 적법한 절차도 없이 권력기관에 의한 자의적 학살이 개별적 수준에서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작은전쟁과 양민학살

한국전쟁의 시발은 엄밀한 의미에서 50년 6월 25일이 아니라 1948년 남한의 좌익이 분단을 막기 위하여 5.10선거를 무산시키고 미군정과 이승만과 한민당 등 분단세력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무력투쟁을 전개하여 통일을 이루려는 무력항쟁 선언인 2.7구국투쟁부터이다. 이 시점부터 50년 6.25전쟁까지 인민항쟁, 야산대와 유격대 투쟁, 38선 무력충돌 등으로 무려 10만 명의 인명이 죽음으로 몰렸다. 이미 분단을 저지하기 위한 통일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은 6.25전쟁 이전에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양민학살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작은전쟁 전후 양민학살의 전재과정을 당시 남로당 함양군당원 하종구 씨의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해본다.

1947년 7·27인민대회 뒤부터 좌익계 사람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인민대회 이후 대청(대한민주청년동맹, 명예회장 이승만), 서청(서북청년단, 위원장 선우기성), 죽청(조선민족청년단, 단장 이범석) 등이 주동이 되어 좌익탄압에 나섰지요. ... 총만 안 들었지 몽둥이, 쇠스랑, 자전거 와이어 등을 들고 습격을 감행했어요. 이런 우익테러에 의해 함양에서도 많은 생목숨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구장인 하종기가 죽었고, 내 삼촌인 하경식도 우익청년단한테 맞아 죽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요? 우린 그냥 맞기만 했어요. 당시 중앙당에서 "폭압이 온다, 폭압이 와도 우리는 대항해서 싸우지 마라. 공위를 빨리 열어야 하니까, 우리가 맞서 싸우면 방해가 될 것이다. 우익테러에 대해서는 도전도 하지 말고 도발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각 지방 당으로 떨어져 있었습니 다...

마침내 1948년 2월 7일이 밝아왔다. 천왕봉에 쌓아둔 달집을 태운 봉화를 신호로 2·7구국투쟁은 시작되었다. 함양군 곳곳에 전기가 두절되었고 교량이 폭파되었다. 당원들 중 일부는 복수심에 불타 경찰과 우익청년단체인 서청, 대한원들의 집을 습격하기도 했다. ... 애긴즉 남도부를 따르는 우루목 사람들이 '악질경찰' 정명길을 잡으려고 추격했다는 것이었다. 정명길은 일제시절부터 경찰을 하던 사람으로 당시 는 함양경찰서 경무계(뒤에는 지서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추격을 받은 정명길은 함양군 수동면 쪽으로 도주했다. 정명길은 어디론가 잠적해버리고 보이지 않았다. 그를 추격하던 남로당원들은 되돌아와서 경찰서를 접수해버렸다.⁴⁾

이렇게 시작한 작은전쟁은 곧, 이어 4·3항쟁, 여순항쟁⁵⁾의 대대적인 인민항쟁으로 이어진다.

1) 4·3항쟁과 양민학살

4·3항쟁은 제주도민이 분단을 막기 위하여 5.10선거를 분쇄하기 위한 통일투쟁이었고, 또 도민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전민중적 항쟁이라는 특성 외에도 전체인구의 10%에 가까운 3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 실제 희생자의 80% 이상이 무고하게 또 무차별적으로 학살되는 참상을 겪은 양민학살이라는 특성을 띤다.

4·3항쟁에서 미국과 이승만이 이러한 학살만행과 대규모 살상행위를 주도한 것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⁶⁾ 항쟁발발 초기부터 미국은 경비대장 김익렬에게 단군정장관의 정치고문인 CIC의 고급장교를 통하여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국제적으로 범죄시 되어 있는 초토화 작전을 촉구하였으나 실패하였다(김익렬, 1994: 312-314). 이에 제주도 미군사령관을 강경파인 브라운으로 교체하고 또 경비대장을 박진경으로 교체하여 한 달여 만에, <조선일보>가

4) 노가원, 『남도부』(상), 월간 말, 1993, 176~179쪽

5) 여순군민항쟁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개입은 하우스만, “한국 땅서 35년, 미군장교의 증언 : 하우스만 회고록”, 『한국일보』 1990년 11월 연재분을 참고할 것. 그의 증언은 아래와 같이 이미 주권국가로 출발한 대한민국의 군작전권을 미국이 자의대로 행사 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9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이 났을 때 나는 주한미군고문장관 특사자격으로, 그리고 육군으로 이름이 바뀐 국방경비대 사령관 고문자격으로 중대한 사명을 띠고 광주에 급히 설치된 여순반란사건 진압사령부에 급히 파견되었다. ... 다만 내가 공식적으로 휴대한 임무서에는 특별 사령부가 효율적 진압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면 내가 직접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진압사령부의 조직 및 작전과정의 운영을 위한 지원 및 감독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돼 있었던 것만 여기서 밝힌다”(『한국일보』 1990. 11. 14).

6) 김종원(64·서귀포시 강정동)씨는 매년 2차례의 제삿상에 4·3으로 희생된 형제 자매와 친척 등 15명의 신위를 한꺼번에 모신다. 당시 처참한 상황을 14살 소년 나이에 토끼눈으로 지켜본 그는 “그때 일을 마음 속에 묻어두려고 해도 평생 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고 말한다. “49년 1월 갑자기 우리 가족이 피신한 곳에 토벌대가 들이닥쳤어요. 어머니, 남동생과 같이 있었는데 나는 도망갔지만 동생은 총맞아 죽고, 어머니는 붙잡혔어요. 어머니는 토벌대가 끊은 동생의 머리를 들고 토벌대를 따라 서귀포까지 간 뒤 행방불명되고... 당시에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습니까”라며 말끝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2월에는 여동생(11)마저 토벌대의 손에 숨지고, 누나(17)는 도망갔지만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다. 나머지 아버지 형제 가족들도 마을 부근 굴속에 피신했다가 토벌대에 발각돼 모두 희생됐다. <한겨레신문> 1998.4.1

보도한 것처럼, 무려 6천명을 체포하는 대규모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물론 직접적인 행동대는 이러한 미군정이 양육하고 또 그들의 철저한 앞잡이와 하수인이 된 친일파 지배하에 있는 경찰과 경비대 그리고 서북청년단 등이었다. 이들 미군정의 하수인 집단인 경찰과 군대 및 테로청년단을 고스란히 인수받은 이승만정권은 해안선 5km이상 떨어진 지역을 무조건 적성지역으로 지정하여 48년 11월부터 무자비한 초토화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이승만 정부 하의 초토화작전에 의한 양민학살에 대해 미국은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 수립 9일 만에 미국은 한국과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방군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한다”고 규정하는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을 체결하였고 게다가 당시 제주도에는 최소한 임시군사고문단(PMAG), 방첩대(CIC), 그리고 미군 59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미국의 동시책임은 면할 길 없다.

이러한 학살만행과 대규모 살상행위는 미군정과 이승만 양자의 필요에 의해서 행해졌다. 미군정의 경우 5·10선거를 실제의 내용이 아무리 허구일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무리없이 치러 남한에 이승만 단독정권을 세워 조선의 분단을 확정시키고 유엔에 공인시키는 것이 절박한 과제였다. 그래서 군정장관인 단소장과 그 하수인 조병옥은 4·3항쟁을 '제주도 밖에서 온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또 '소련연방화 책동'이니 '국제공산주의자와의 연계' 등으로 매도하여 이를 빌미로 긴급히 무력진압을 정당화시키려 하였다. 이로써 5·10선거를 마무리 짓고 조선의 분단을 제도화시키려 하였다.

이승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3항쟁 때문에 제주도의 2개 선거구가 무효화됨에 따라 선거자체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고, 여순항쟁이 발발하여 이승만정권의 생존가능성이 국제적으로 의문시되었고, 유엔의 승인에 즈음하여 미선거구가 걸림돌이 되었고, 김구나 김규식 등의 지도하에 통일운동이 활성화되어 이정권의 정통성 상실이 백일하에 노정 되었다. 이에 초토화작전을 통하여 긴급히 4·3항쟁을 평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 정권기반을 강화하고 분단을 고착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결과 최소한 약 2만5천에 가까운 양민이 학살되었다.

2) 여수군민항쟁

앞에서도 밝혔지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지만 여전히 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한 미군은 48년 10월 중순 여수주둔 14연대 1대대에 제주항쟁의 진압을 위한 출동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명령을 거부하고 10월 19일 오후 8시 국군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장병의 대다수인 3000여명이 봉기에 참가하고 여수의 좌익들이 인민대회를 열고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여 통치권 행사를 함으로써 단순한 군인봉기가 아닌 민군봉기로 발전하였다. 이에 22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23일 합포사격이 시작되어 한달 동안 육해공군 합동진압작전과 2개월간의 관련자 색출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색출과정에서 보복적인 테러, 학살, 약탈, 방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색출작업은 전 주민을 학교 등 공공장소에 집결시켜 놓고 주로 “머리가 짧은지 자, 군용팬티를 입은 자, 손 바닥 총을 든 흔적이 있는 자, 흰 지까다비를 신은자 등”의 의모에 의하여 부역자를 골라내어 일부는 즉석에서 “곤봉, 개머리판, 체인 등으로 무참하게 타살되거나 또는 총살을 면치 못하였으며” “백두산 호랑이로 소문난 제5연대 김종완 대대장이 교정의 버드나무 밑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즉결 참수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전라남도 보건후생부의 이재민 구호자료로 발표된 자료는 이 과정에서 여수를 포함한 7개 지역에서 2,634명이 사망하고, 4,325명이 행방불명되었다 한다.⁷⁾

여순군민항쟁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개입은 하우스만이 “한국 땅서 35년, 미군장교의 증언 : 하우스만 회고록”(『한국일보』 1990년 11월 연재분)라는 회고에서 밝혔다. 그의 증언은 아래와 같이 이미 주권국가로 출발한 대한민국의 군작전권을 미국이 자의대로 행사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9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이 났을 때 나는 주한미군고문단장 특사자격으로, 그리고 육군으로 이름이 바뀐 국방경비대 사령관 고문자격으로 중대한 사명을 띠고 광주에 급히 설치된 여순반란사건 진압사령부에 급히 파견되었다. … 다만 내가 공식적으로 휴대한 임무서에는 특별 사령부가 효율적 진압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면 내가 직접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진압사령부의 조직 및 작전과정의 운영을 위한 지원 및 감독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돼 있었던 것만 여기서 밝힌다”(『한국일보』 1990. 11. 14).

반란군은 좌익민중들과 연합하여 항쟁을 전개하였으나 진압군에 격퇴당하여 지리산 등의 산악으로 들어가 27구국투쟁이후 형성된 야산대와 결합하여 본격적인 유격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하여 남한의 133개군 중 무려 118개 군에서 유격전구가 형성되어 작은전쟁은 지속되었다. 물론 이 유격대 전쟁과 토벌전쟁에서, 특히 최덕신 등이 행한 청천벽력작전 등에 의하여 수많은 양민이 피살되고 그들의 집과 재산은 파괴되었다. 이 작은전쟁의 인명피해는 무려 10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영민피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주의 2만5천 여순항쟁에서 행방불명이 된 4300여명 대부분이 양민일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 3만명 이상일 것이다.

7) 안종철, 『여순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편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제1집: 여수지역 편』 1998.

4. 6·25전면전쟁과 양민학살: 보도연맹, 유격전과 양민학살

1950년 6월 25일 작은전쟁에서 북한이 전쟁을 확대하고 곧 이어 미국이 27일 전쟁에 개입할 것을 선언하고 28일에 한강 북방을 미공군과 해군이 포격을 시작하면서 한국전쟁은 새로운 국면, 곧 전면전쟁으로 진입했다. 이어 7월 5일 오산에 미국의 지상군이 투입되면서 본격적인 전쟁과 양민학살은 진행되었다. 미군과의 오산전투를 치르기 이전, 곧 서울 점령전투에서나 직후는 별로 양민학살이나 대량의 살상이 전개되지 않았다. 유성철의 회고와 같이 “인민군이 서울 점령 3일째인 7월 1일부터 다시 남진을 시작함으로써 6·25는 제한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⁸⁾ 이 시점, 곧 미군의 직접적인 개입에서부터 양민학살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양민학살 유형은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적 학살, 6.25발발시 형무소에 있는 죄수에 대한 집단적 처형, 국민방위군사건, 노근리나 이리역같은 미군에 의한 학살, 북한인민군과 토착 공산세력에 의한 학살, 수복과정에서 남한군과 경찰에 의한 무차별적인 학살, 제2전선 주위의 양민학살사건인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같은 학살 등이다.

1) 보도연맹원 학살

대표적인 양민학살은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적인 학살에서부터 시작된다. 보도연맹은 1949년 11월 28일자 권순열 당시 내무부장관의 담화문에서 알 수 있듯이 좌익세력에 대한 회유책이었다. “공산주의 사상에 오도돼 반역도당에 가입, 활동했 을지라도 대한민국의 충성된 국민임을 염원하고 실천에 옮긴 자라면 우리는 그들 을 관용, 관대하게 용서해 줄 용의가 있음을 언명해 둔다.” 보도연맹원 가운데 생자의 한 사람인 우흥원 씨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무고한 양민이 가입된 경우도 많았다. “관에서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비료를 준것다기에 손도장을 찍었다”(『역사 기행—보도연맹원 학살 현장을 가다』, 『내일신문』 1994. 11. 2, 44쪽).

경남 진양군 대각면에서 이루어진 학살에 대한 증언은 전쟁초기에 이뤄진 학살의 유형을 짐작케 한다.

그 당시에 공무원 제쳐놓으면 모두 좌익 아닌가. 좌익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그렇게 이야기했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도연맹원을

8) 한국일보 편, 『증언 김일성을 말한다 : 유성철 · 이상조가 밝힌 북한정권의 실정』, 한국일보사, 1991, 92쪽

소집하여 훈련을 시켰다. 전쟁 후 3~4일 후부터 훈련이 시작되었다. 면에서 한 40~50명이 훈련을 받았다. 2차에 걸쳐 사람들이 죽었다. 1차는 수곡면에서 4~5명되었는데 먼저 잡아가 버렸다. 거물급이라고 생각되던 사람들이었다. 2차는 몇 차례 소집훈련을 한 후 하루는 훈련하던 사람들을 모두 묶었다. 죽은 사람이 40~50명 되었다. 명석(진양군 명석면) 근처의 골짜기에 몰아넣고 일제사격을 해 죽었다고 한다. 인민군 점령기간중에 시체를 찾으러 마을사람들이 갔으나 여름이라 썩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⁹⁾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학살된 보도연맹원은 약 25-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연맹원에 대한 초기의 집단적 학살은 그 이후 연쇄적 학살의 고리를 형성했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곧, 보도연맹에 연류되어 학살된 유가족이 그 이후 진주하는 북한인민군에 힘입어 남한의 공무원, 경찰, 지주계급 등에 대한 보복살인을 자행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는 바로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와 더욱 더 동족상잔을 부추겼다.

2) 형무소 수인의 집단 학살

이러한 보도연맹 외에도 6.25전면전쟁 초기에 형무소에 있던 좌익세력 등이 수없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피의자로 재판중인 통일일꾼이었던 손병선이 재판정에서 개진한 모두진술은 민간인 학살의 체험과 통일일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숫자는 아직 제대로 연구되거나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정부 공식 기록문서가 공개되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저의 아버지는 8·15해방 이후 조국의 진정한 자주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옥살이를 했으며 출옥 후에는 고향인 충북 영동에서 부산의 산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제가 23살 되던 이때에 동대신동의 산 위 저희마을 옆 초량 공동묘지에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미제 G.M.C.트럭이 한차 가득히 부산형무소에서 처형된 사상범들을 싣고 와서 가마니로 덮어놓은 것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이 모든 비극이 해방이후 조국이 분단된 까닭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¹⁰⁾

3) 토착공산세력과 퇴각하는 인민군에 의한 양민학살

남한에서 공산집단에 의한 피학살자 수는 공식추계에 의하면 남자 97,680명, 여

9) 정진상, 「한국전쟁과 계급구조의 변동」,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창립10주년기념논문집, 『계급과 한국사회』, 한울, 1994, 118쪽).

10) 반해평화운동연합, 『손병선 의장 모두진술』, 서울, 1992, 2쪽

자 31,256명 등으로 합계 128,936명이라고 한다.¹¹⁾ 또 남한당국이(당시 공보처 통계국) 공식적으로 발표한 인민군에 의한 남한 민간인 피랍자 수는 82,595명이다. 그러나 1959년 외무부 정보국장 이수영의 주제로 열린 피랍자명부 파악에 대한 대책 회의에서 이수영은 이 명단을 국제적십자사에 그대로 보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이러한 오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보처 통계국장은 남북인사 82,595명의 통계는 공산당의 죄악상을 폭로하기 위해 비 민간인인 군인과 경찰을 포함시켰고, 인명중복이 있었고, 행방불명자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피랍인사 위주의 통계가 아님을 밝혔다. 결국 82,595명은 군인, 경찰 등 비민간인과 행방불명자까지 고의로 포함시켜 조작된 수치임을 실토했다.¹²⁾ 이러한 통계의 자의성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 추정하기가 힘들다. 당시 북한은 9·28 당시 미군과 남한군에 의해 피랍된 숫자가 14,112명인 것으로 국제적십자사에 통보했다.

전쟁의 경우 개인적 수준에서 양민학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매우 높다. 보다 중요한 점은 이들 범죄행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공식집단에 의하여 조장과 묵인 아래 행해졌느냐 하는 점이다. 남북의 대조적인 점은 북은 미국의 '범죄행위'에 대해 세계여론에 공식적으로 호소하여 그 진상을 공개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실제로 국제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미국이나 남한은(필자가 알기로는) 북한의 학살·만행을 말로는 규탄하면서도 국제진상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증언에 의하면 양민학살의 경우 북한인민군보다 남한군이 훨씬 더 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험적인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지만 일본군출신 위주로 구성된 남한군의 태생적 한계를 고려할 때 유격대출신 위주로 구성된 인민군이 연역적으로도 이는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4) 수복과정에서 남한 군인과 경찰에 의한 무차별적인 학살

6.25전면전을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인민군보다는 남한의 국방군이나 경찰의 횡포에 대하여 많은 일화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사실은 할리데이와 커밍스도 뒷받침하고 있다. "컷포스는 이 시기 이승만 군대의 활동은 '전투라기보다는 대량학살'이라고 결론짓는다. 한 미대사관 직원은 1950년 9월 이승만정권의 남한에서는 '아마도 1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기록했다. 이 숫자는 전쟁 전기간에 걸쳐, 남북한을 통틀어 공산군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최고치 인

11) 『북한 30년사』(김학준, 『한국전쟁』, 박영사, 1989, 345쪽에서 다시 옮김. 또한 권영진, 「6·25살상 다시 본다」, 『역사비평』 1990년 봄호, 302쪽에서도 재인용되어 있음

12) 대한민국의외무부 외교문서 제1회 공개자료 : 분류번호 729.5 일련번호 146, "한국전쟁 시 피납치인 명부관계, 1954" 마이크로 례번호 G-0001, 후래입번호 1065-1138).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원보다 훨씬 더 많다”¹³⁾. 이 미국대사관 직원이 말하는 10만 명 수준은 역사적 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전해 준다.

또 당시 어느 한 목격자의 증언은 소름끼치는 장면을 잘 그리고 있다.

1950년 ...늦은 가을... 미아리 뒷골목에선 한낮인데도 하나는 군인 또 하나는 청년 이렇게 두 젊은 사내가 젊은 아낙 한 분을 야구방망이만한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살인 만행이 벌어지고 있었다. ... 뜨문뜨문 지나던 사람들은 그 몸서리치는 만행이 역겨워 고개를 모로 꼬며 가고 또 멀리 마루턱에선 지그시 창문을 닫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 끔찍한 장면을 헛기침 소리로 나무라건만 그런들 두 사내가 끄떡이나 하랴. 더욱 우악스럽게 그 연약한 아낙을 내려치고 있는 것이었다. 험하고 후려갈기면 마치 들판에 홀로 선 강냉이 대처럼 풀썩 꼬꾸라지다가도 아, 그게 웬일이던가. 그렇게 쓰러졌던 아낙은 피를 머금은 채 마치 두억신처럼, 너무나 원통히 죽는 것을 못 참아 마침내 관속에서 그냥 관채로 벌떡 일어나 뚜벅뚜벅 달려드는 원한의 두먹신처럼 일어서며 울부짖는 것이었다. “그분이 북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내 어찌 아느냐”고 항변한다. ... 이렇게 몽둥이 들고 내려치기를 서른 번 남짓 마침내 지는 해와 함께 그 몽둥이짐질 소리도 그 아낙의 비명소리도 더 이상은 아니 들려왔다(백기완, 1994, 121~122쪽).

세계 최장기 사상범으로 수감 45년만에 석방된 김선명씨의 경우 “50년 김씨가 월북하자 그의 아버지와 누이는 국군에 총살당했고, 살아남은 김씨 가족들은 그 피해의식에 짓눌려 아예 김씨를 잊으려 했다. 그의 어머니(92)는 아직 생존해 있지만 아직도 아들이 북에 있는 줄로만 알고 있다.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그의 수감사실을 숨겨온 것이다.”¹⁴⁾라는 진술에서 보듯이 보복성 양민학살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단학살의 경우 유족이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고, 설사 유족이 남아 있더라도 피해 유가족이 노령으로 인하여, 또 학살이 산간지역 등에서 일어난 경우 6-70년대의 도시화의 진척으로 도시이주 등으로 인하여 공동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피해 유가족 당사자에 의한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되지 않아 양민학살이 은폐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빨갱이 가족이라는 ‘사회적 천벌’에 의해 낙인찍히고, 탄압과 불이익, 4.19이후 진상규명운동에 참여하였던 당사자들이 대부분 옥살이를 한 경험 등으로 인하여 학살사건 등은 대부분 묻혀

13) 커밍스와 할리데이,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태암, 1990, 148쪽

14) “[사면] 8.15 석방 김선명씨는 누구인가” 『한겨레21』 1995. 8. 11

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극히 일부에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으나 4.19 이후와는 달리 지금은 대부분의 피해 당사자나 유족이 죽거나 노쇠하고 또 반세기가 지나 각기 전국으로 흩어져 살기 때문에 유족회 등의 구성이 힘들어 진상규명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강요된 침묵에서 벗어난 보기가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 있는 금정굴의 유골발굴작업이다.

“[9월] 29일 한국전쟁 당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유골이 발굴됨으로써,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의 실체가 비로소 확인됐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까지 극심했던 이념대립의 와중에서 전국 곳곳에서 술한 양민학살사건이 있었지만, 이후 첨예한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정굴 사건도 그 한 예이다. ‘금정굴사건 진상규명위’ 위원장 김양원(43)씨는 “유족들 중에서도 ‘자칫 또 빨갱이로 몰리는 게 아니냐’며 사건 자체를 공개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유골 발굴은 지난 93년부터 3년여 동안 진실을 밝히려 애쓴 ‘금정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와 유족회의 힘겨운 노력의 결과이다.... 93년 10월 진상규명위는 고양경찰서에 당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시작으로 국회 내무위와 청와대 등에 무수히 진정서와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로부터 돌아오는 회신은 “근거 없음”이었다고 한다.... 유족들은 “당시 사망자가 1천 여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우익단체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금정굴에서 1백 여명의 좌익인사들을 처형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¹⁵⁾

5) 제2전선주위의 양민학살 사건

정희상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전쟁 전후 이승만정권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은 1백만 명 수준에 이른다. 전남북 지역의 약 20만 명, 보도연맹 학살의 30만 명 등을 포함하여 함평, 문경, 대구, 부산, 함양, 산청, 거창, 충무, 거제 등 민간인 학살은 전국적, 조직적, 체계적인 현상이었다. 4·19 이후 거의 남한 전역에 걸쳐 구성된 유족회, 국회진상조사단의 조사 등으로 이들 민간인 학살·만행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으나 5·16쿠데타 이후 이들 유족회는 대부분

15) 『한겨레신문』 1995. 9. 30